朝鮮日報
夕刊
十五日(木)
本紙朝刊十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株式會社

蔣氏難局打開코저 國府大改造企圖
歐米派西南派勢力導入코大同團結
汪氏엔當分留任懇請

【電通南京十四日發】汪精衛氏의 辭表撤回에 伴하는 汪派의 策謀는 深刻할뿐만 아니라 反汪派의 策謀도 一段猛烈하야 收拾하기 어려울 憂慮가 잇슴으로 蔣介石도 時局收拾上 從來와如한 彌縫策을 許치안는 事情임으로 國民政府大改造에 依한 局面打開工作을 期하게되엿다하며 現在 蔣、汪兩氏中心의 國民政府에 强力을 爲하야 더욱 歐米派及西南派의 勢力을 導入하야 大同團結의 力으로 難局을 打開하려는것으로 그具體方法은

一、汪精衛氏의 留任을 懇請하야 長期休暇의 形式을 取하든지 안하든지를 不拘하고 行政院長에는 어데까지 汪氏를 擁立하야 暫行的으로 孔祥熙氏가 院務를代行함

一、財政部長은 孔祥熙氏를 留任하야 浙江財閥의 支援을 受할 宋子文系를 支持하야

一、發表된 ... 氏대문에 分裂된 交通部、鐵道部를 原狀대로 還元하야 大交通部로하되 部長에는 歐米派의 首領宋子文氏를 任命할것

一、西南派에 對하여는 中央參與者가 決定된後 適當한 椅子를 與한다

一、右方針에 基한 國民政府의 改造는 對日根本方策과 함께 六中全會의 主要議題로함

一、最近의 情勢에도 責任外交部長을 設置치안코 部長代理를 두어 徐謨가 ... 當하게함

等인데 部長代理에 歐米派는 外交部次長 徐謨氏를 推薦하고 汪精衛派는 常務次長 唐有壬氏를 支援하고잇는바 其中何人을 採用하는데 따라 今後의 對日제스추어가 判斷되리라고 하는데 蔣介石、汪精衛氏의 妥協工作은 아즉 全然絶望은 안이다 (寫眞은 蔣介石氏)

汪氏外交部長兼攝은 結局辭任承認乎
後任엔現駐日大使蔣氏有力
駐日大使에는商震氏?

【電通南京十四日發】今日의 中央政治會議는 汪精衛氏의 留任을 懇請하기로 滿場一致 決定하엿는데 同時에 汪氏가 外交部長을 兼任하는것은 健康上重荷라는 見地에서 外交部長의 辭任은 許可할것이라는 意見이主張되엿다 그리고 그候補로는 蔣作賓氏가 가장有力視되엿다 萬若 蔣作賓氏가 外交部長에 就任하면 駐日大使의 後任에는 河北省主席商震氏가 有力視되여잇다

宋子文、孔祥熙氏 蔣氏會見次發京

【南京十四日發聯合】汪精衛氏의 辭職以來 그行動을 各方面에서 注目하고잇든 宋子文氏은 十四日朝 上海로부터 來京하야 直時 財政部에 孔祥熙氏를 訪問하고 懇談하엿는데 宋、孔兩氏는 十四日夜 水災狀況視察을 名目으로 各其 長江을 溯航할 豫定인데 孔氏는 形便上 明朝出發케될는지도 알수업다 目的地는 其他一切가 不明하고 더욱宋氏은 途中 廬山에 林森氏를 訪問한後 이機會에 四川에 赴하야 蔣介石氏와 對面하고 懇談하리라고 觀測된다 宋氏의 赴川은 今後政局의 推移에 重大한 影響을 가지는것 이라하야 注目되여잇다

【電通南京十四日發】孔祥熙氏는 揚子江上流의 水害視察次로 十四日夜南京을 出發하엿는데 途中 廬山에서 林森氏와 會見하고 汪精衛氏 辭職 其他問題에 對하야 懇談하고 漢口로 向하엿는데 同地에서 成都로부터 歸來할 蔣介石氏와 會見하고 汪氏의 辭職問題 其他를 報告協議할터이다 右蔣氏와의 會見에는 宋子文氏도 참加하야 懇談할 模樣이다

滿洲國治外法權撤廢와 在滿朝鮮人의關係 (一)
金麟伊

一、問題의由來

滿洲國內의 治外法權撤廢問題에 對하야는 昨冬에 本問題를 滿洲國에서 駐滿 日本當局者와 外務省과 內交涉을 開始하자 在滿日本內地人은 勿論 在滿二百萬朝鮮人도 一齊히 反對의 熱火를 올니게되야 交涉은 一時停頓狀態에 陷하엿든니 其後雙方의 交涉과 折衝은 默然中에 進行되야 治外法權의 撤廢方法과 其他具體的方針에 關하야 關東局과 大使館間의 意見에 重大한對立이잇서 現地側의 紛糾도 有하엿든바 八月九日의 閣議의 決定으로 治外法權의 撤廢와 滿鐵附屬地行政權의 調整乃至移讓에 關한 根本方針이 發表되것은 이미 本紙上에 報道되엿슴으로 周知하는 事實이다 治外法權은 數十年來 日本이 享有한 條約上의 重大權益일뿐아니라 其內容이 極히 廣汎하며 複雜하니만치 이것의撤廢는 各方面에 影響이 波及한다 在滿日本內地人은 勿論 特히朝鮮人의 政治的關係와 經濟生活에 相當히 重大한 變化를 齎來할것이 豫想되다 特히 吾人의關心을 갓게하는것은 今年初에 滿洲國에서는 在滿朝鮮人無籍者에 限하야 于先 治外法權을 撤廢한다는 內訓을 地方廳에 發하야 政治的差別待遇의 一端을 보이고 또治外法權撤廢의 試驗的實施를 奉天省內某處에서 實行하야 마친 朝鮮人을 試驗研究에 動物을 使用하야 試驗하는것과 마찬가지로 待遇하며 取扱한 事件이잇서서 當時에 吾人이 論難한바잇스며 注目한바가잇는 말성만흔 治外法權撤廢問題이다 이것의 撤廢를 正式으로 決定하엿다하여도 아즉 滿鐵附屬地行政權移讓에 關한 大使館과 關東局의 意見에 對立이잇서 政府의 聲明에 依하야 도리여 더욱 其紛糾가 助長될 形勢에 잇스며 또撤廢方針이 行政的部分으로부터 先着하야 漸進的으로 治外法權의수領域의撤廢를 實施할計劃인同時에 가장 困難한敎育權問題等이잇다 그럼으로 本論에 잇서서는 治外法權이라는것은 如何한것이가에 對하야 簡單한 說明을 하기爲하야 其由來와內容에對한 說明을하려한다 卽治外法權의本質이든 治外法權에 關한 條約의 解釋等에 關하여는 여러가지 論議가잇슬것이나 여기서는 理論的問題를 떠나 滿洲國에잇서서 日本의 治外法權이라는것이 어떠한것인가를 實際的方面으로 說明하는同時에 撤廢方針의 內容과 在滿同胞에미치는 影響等을 論評하고저한다

二、治外法權의由來와其意義

그러면 大體 治外法權이라는것은 어떤것인가 治外法權에는 두가지 意味가잇스니 一은 外交特權의 意味로 外交使節이 享有하는 特權을 指稱함이요 一은 領事裁判權의 意義로 領事裁判制度를 말하는것 인데 本論에서 治外法權이라는 것은 後者의 意義의 것이다 領事裁判 制度는 過去에는 日本 土耳其 波斯 暹羅에도 施行되엿든가 잇섯지만 現在에는 中國과 滿洲와 에티오피아 三國뿐이다 中國이나 滿洲에잇서 治外法權問題의中心은 領事裁判制度이지만實際에 잇서서는 여러가지 問題가 附隨하야 極히 複雜하다 列國은 일즉 中國에서 領事裁判權을 獲得하는 同時에其他 課稅上 行政上通商上의 特權을 獲得하엿스니 一般的으로는 此等諸特權을 一括하야 治外法權이라 指稱하다 日本이 治外法權이라는 名目下에 領事裁判權과는 關係가업는 司法警察權을 行使하는것도 亦是前記의意味에서다 治外法權은 一面으로보면 强者의 特權이며 他面으로보면 低文化國에 强制하는司法行政權의 制限이다 日本도 明治初年에 治外法權 때문에 엇지나 오래동안 不合理와屈辱을 當하엿든가 後에 所謂條約改正이라고 云謂한 國際難件은實로 治外法權撤廢의 別名이엇섯다 司法權에 外人을 參加식히는條件으로 條約의 改正을 圖謀하고 當時의 大隈外相은 爆彈의 洗禮를 바다 双脚을 일허버리지안헛든가 全然特別한關係에잇는 日本이 滿洲國內의 治外法權을 撤廢한다는것은 當然한順序라하겟다

滿洲國內의 治外法權은 滿洲가 中國의 一部로되어잇섯슬때에 日本이 享有하엿든治外法權에 由來한다 卽 昭和七年九月十五日의 日滿議定書에 依한約束으로 從來 日本이 中國과의條約及慣行에 基하야享有하든것을 滿洲國에서 享有하게되엿다 따라서 滿洲國이 日本에게 許容한 治外法權의內容은 中國에잇서서의 治外法權의內容과 同一하다

中國의 現行 治外法權制度라는것은 一八四三年以來 中國과 諸外國間에 締結한 多數의 條約에 其根源을 發하는것으로 其最初의 條約은 有名한 鴉片戰爭의 結果로 一八四二年의 英中 南京條約의 附屬條約인 一八四三年의 英中虎門寨條約이다 此 英中條約의 翌年卽 一八四四年에는 米中及佛中間에 英中條約과 비슷한 條約이 成立되고 다시 一八五八年에는 英中 米中 佛中等의 各天津條約이 締結되야 大概 現在의 治外法權制度에 近似한 一般的 制度가 確立되엿다 이後 中國과 外國間에 新條約이 締結되며 또는 各種의 慣行이 發生됨에 따라 其때마다 治外法權의 內容은 擴充되며 或은 變更되야 現在에 이르럿다 日中間의 治外法權에 關한 條約은 一八九六年에 締結되야 이미 有效期間을 經過하엿스며 이廢止에 同意한 國家가 九國이고 他國의 同意를 條件으로 廢止에 同意한 國家가 七國이나 되어 大體로 中國의 治外法權은 撤廢의 傾向에 잇서 現下 日中外交의 重要懸案으로 物議를 釀成하고잇는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續)

經濟問題에限해 伊政府主張支持
英國의權益確保方針을强調
이든氏佛首相과會見

【巴里十四日發聯合】이든無任所相은 十四日 午前十一時 佛國外務省에 라발首相을 訪問하고 前後一時間半에 亘하야 重要會談을 遂하엿다 右會談에 잇서 英國政府의 根本方針을 거듭 强調하야 左와如히 述하엿다고 確聞한다

一、英國政府는 에치오피아의 나일河의 流水權을 確保하야 주면 其他는 何等 새로운權益을 要求치안코 經濟問題에 關한限 伊太利政府의 主張을 全的으로 支持할 意思가잇스나 政治的要求에는 어데까지 反對함

一、英伊兩國政府는 一九二五年의 交換公文에서 ... 에치오피아나湖와 靑나일河의 廣汎한 流域에 亘한 經濟的 發展의 特殊權益을 確保하고잇다 英國政府로서는 右公文을 擴充하야 和協達成을 圖함

右에 對하야 라발首相은 佛國의根本的對策을 提示치안코 平和的處理를 圖할 結論을 述한데 끗친것이라고 解釋된다 (寫眞은 이든氏)

金森長官의告發 十四日正式受理
著書가天皇機關說이라고

【東京電話聯合】憲法學說再檢討會代表 板橋菊松氏는 十四日東京地方檢事局에 法制局長官 金森德次郞氏를 出版法第二十六條에 依하야 告發手續을 取하엿다 理由는 金森氏의 著書 昭和九年發行인『帝國憲法要綱改訂』이 天皇機關說을 說述한것이라하야 東京檢事局에서는 十五日 正式으로 이를 受理하고 戶澤檢事係에서 取調를 行하기로되엿다 右에 關하야 金森法制局長官은 十四日夜 私邸에서 左와 如히 말하엿다

나는 아직 告發되엿다는것을 듯지못하엿다 自己의 憲法學說에 關하야 種種議論이 잇는 모양이나 自己는 伊藤公의 憲法義解와 穗積博士의 主體說과를 敷衍한것이지 世間에서 所謂機關說이라하야 排擊하는 日本國體에 反馳되는學說과는 全然다른것이다 따라서問題에 對하야 自己로서는 何時에如何한 方面에서 說明을求하든지 充分說明할 覺悟가잇다 自己는 아직自己의 學說이 日本國體에 背馳되는것이 아니라는 信念을갓고잇다

金森長官憲法學說은 美濃部學說同樣
다음은一木樞相을告發할터
憲法學說再檢討會見解

【電通東京電話】憲法學說再檢討會는 金森法制局長官의 帝國憲法要綱改訂版의 內容에 關하야 天皇機關說을 是認한것이라하야 그를告發한바잇섯다 卽告發者側의 意見으로는 金森長官도美濃部博士와同樣의 立場에 두려는 것으로 벌서부터 風說로들리든 『一木、金森兩學說』은 天皇機關說이라하야 美濃部博士와 同樣으로이를彈劾하려는計畫의 一端을 實現한것이다 이다음에는一木樞相이 일즉述한憲法學說에對하야 다시告發할것은 明白하다 右에 對하야 金森長官은『右는 天皇機關說을 述한것이안이다 伊藤公의 憲法義解 穗積博士의 天皇主體說을 敷衍한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一方 一木學說에 對하여는 一木男은 이에 關한 出版物이업다 그것은 以前에述한것임으로 今日에 이것을 끄집어내여 云謂할것이업다고하야 岡田首相은 過日機關說撲滅聲明에 附隨하야 特히 新聞記者에게 言明까지하엿다 그言明은업는마큼理由가잇다고하야 彈劾派는 어데까지兩氏를 糾彈하려는 氣勢로 번가라가며 肉迫하려하며 研究會의一部도 이에加擔하야氣勢를 올니고잇슴으로政府로서도 等閑할수업다 一方 目下 司法部에서 檢討되고잇는 美濃部博士問題가 마츰내 起訴手續을 自然 金森氏로부터 一木氏에게로 範圍가 擴大되여 政界에 及할 影響은 甚大하야 單純히 一法制局長官 一樞府議長 延하여서는 岡田內閣의 進退만에 끈치지안코 重臣의 一角을 動搖케할것은 必致의 情勢인바 現在美濃部博士에 對한 處分이 決定되지못하고 靜觀態度를 繼續하고잇는것도 이에서 起因되는 것이라하야 何如튼 此等 處罰은 政局 全般에 對하야 濃厚한 影響을 招來할것이다

部內統制强化次
陸相、上層部大肅正斷行?

【東京電話聯合】林陸相은 閣議로부터 歸來後 即時 橋本次官 今井軍務局長을 官邸에 招致하야 今後國軍을 如何한 方法에 依하야 徹底的으로 肅軍할것인가에 對하야 愼重協議하엿다 그리고 林陸相의 意向은 部內의 統制强化를 確立하고 軍規肅正을 徹底케하기 爲해서는 부질업시 形式的方法으로서 하더라도 그效果는 적고 具體的效果를 擧하기는 困難하다는 見解를 가지고 事務當局으로하여금 가장 妥當하고 效果的인 肅軍의 具體策을 考慮하라고 下命하엿다 따라서 橋本次官은 今井軍務局長 山岡整備局長、後宮人事局長等을 招致하고 可及的 速히 肅軍達成의 具體策을 考究하야 陸相에 報告할터인데 目下 具體策으로 考究되고잇는것은

一、軍司令官師團長會議의 召集
二、聯隊長會議의 召集
三、參謀長會議開催
四、三長官의肅軍에關한訓令傳達

等인데 一、二、三은 모다 實現되더라도 陸軍省內의 首腦部人事에서 軍大影響을 與한後이오 特히 斂腕達識의 永田軍務局長의 突然한 逝去로 軍務局長의 事務引繼는 全혀 不可能하야 新軍務局長今井中將도 그職責遂行上 자못 困難에陷하야 此等會議開催에는 相當한 時日의 餘裕가 必要한것은 明白하야 早急히師團長會議를 開催함과 如함은 現實問題로 不可能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林陸相으로서 如何한 方法을 考究實施 할것인가 그方法의 하나로 따로 胸中에 肅軍의 徹底를 期하기爲해서는 最緊要事이란 것을 確信하고 잇스므로 近近 二長官에게 對하야 自己의 責任問題와함께 人事에 對하야 軍大意見을 表明할것으로 보인다

武器禁輸解除를 「에」國强硬要求
伊國의殺戮的軍備繼續指摘
聯盟理事會에對하야

【電通주네브十三日發】에디오피아는 聯盟理事會에 對한 武器禁輸解除要請의 內容은 左와如하다

歐洲諸國의 에디오피아에 對한武器禁輸는 極히不公平하다 聯盟理事會는 人民의 殺戮을 繼續準備하려하는 나라에對하야 이를 阻止하지안코 許容하는데 對하야 世界監視中에 責任을질것이다 和協委員會가 開催되게되엿스나 伊太利는 依然軍備를 續行하고잇다 特히 伊軍事의 聲明은 特히 에디오피아帝國攻略에 寄與하는 것이라고 宣言하고 잇다 에디오피아는 自國內에 잇서 武器를 製造할수는 업슴으로 이를 外國에 求하는것이다 그런데 에디오피아政府는 今日國境內에 防禦手段을 求하기는 絶對不可能하고 다른곳에서 이를 求하려하면 그곳에는 輸出禁止命令이 잇다 이러한 現狀은 果然 公正한것이될가

그리고 右는 英國의 對에武器輸出禁止에 對한 國內의 一般輿論을 이르킨것이라고 解釋된다

內蒙開發爲한 大蒙公司設立準備

【新京十四日發聯合】內蒙古開發를 主眼으로한 大倉商事의 大蒙公司設立準備는 着着進捗되여 資本金百萬圓의 法人組織으로 本店을 新京에 支店을 林西、庫倫、赤峰三個所에 設置하기로되엿는데 今月中에 設立케될豫定이다 이것이 設立되면 問題의蘇聯系의德化公司와 對抗하야 日滿經濟提携의先驅로 活躍할터이다

話題解說
三長官會議

◇永田軍務局長의 橫死事件으로 因하야 陸軍에서는 三長官會議를 열고 軍大協議를 하얏다。무릇 陸軍軍大事가 이러나면 三長官會議를 연다。陸軍에 關한 軍大事아니라 國家軍大事가 잇스면 三長官會議를 열고 三長官會議의 이름으로 陸軍을 代表하야 態度를 表明한다。그 表明되는 意見이 아닐로 거이 他의 움직임을 밧지 안는 權威를 가진다。그러면 三長官이란 무엇이며, 그權限及 對政府關係는 어떤가。

◇三長官이란 參謀總長、陸軍大臣、敎育總監을 말한다。參謀總長은 參謀本部의 長官으로서 陸軍大、中將으로서 이에 親補하고、天皇에 直隸하야 帷幄의 軍務에 參畫하며 國防及 用兵에 關한 計畫을 掌하고、參謀本部를 統轄한다。그리고 陸軍大臣은 國務大臣으로서 天皇에 對한 輔弼의 責任을 지는것은 勿論이어니와、參謀總長과 마찬가지로 國防、用兵에 對하야 帷幄上奏의 權限을 가젓스며 敎育總監은 天皇에 直隸하야 參謀總長、陸軍大臣의 管轄下에 잇는 陸軍學校를 除한 一切의 陸軍의 敎育을 統轄한다。

◇그러므로 이 三長官은 陸軍에 對한 軍大한責任을 가젓슬뿐아니라、參謀總長、陸軍大臣은 國防、用兵에 對한 帷幄上奏의 權限이 잇스므로 國防、用兵에 關하야는 當然히 責任을 질 것이다。

◇用兵에 對한 事項이 內閣外에서 定해질 境遇가 잇다하야 憲法學說에서 問題되기 한두번이 아니엇다。三長官中 二長官이 稱하면 三長官會議의 權威는 宏壯하며 그權威는 陸軍統率 三長官의 內閣에 對한 그것과 特히 異하리만큼 宏大하다。그러므로 國防、用兵에 對한 天皇의 特權이 存함에 依하야 參謀總長 海軍軍令部長 陸軍大臣이 잇슴을 말해준다。

八面錄

◇三千萬圓의 新社會를 만들어 十五個年에 十六萬戶八十萬人의 朝鮮人을 滿洲에 移植할 計劃。

◇잘살수만잇다하면 누구라서新天地를 실혀하랴、現在의 百萬同胞부터 指導扶植함이 急先務。

◇刑餘의 不幸한사람을 爲하야 五十萬圓基金으로 保護事業을 計劃。

◇말만이라도 奇特한일이오 그러나 그보다도 犯罪者가 적어지도록 社會的豫防注射가엇덜가요。

◇武器禁輸는『에디오피아』의生命制限이라고 聯盟에 解除를 請願。

◇軍備縮少보다 軍備擴張이 平和策이라하는 新政治家諸君感想이 若何오

人事·集會

◀田中武雄氏(總督府外事課長)渡東中十八日午後三時二十分京城驛發赴任

◀穗在河氏(外事課事務官)渡東中十四日赴任

永田中將葬儀執行

【東京電話聯合】陸軍의 不出의 英才라고 二特米가 囑望되다가 不慮의兇刀에 너머진 軍務局長正四位勳一等永田鐵山中將의 葬儀는 十五日 陸軍葬喪令에依하야 靑山齋場에서 執行되엿다

第二十四期(昭和十年上半期)決算報告
貸借對照表 昭和十年六月三十日現在

資産	
拂込未濟資本金	一〇、〇〇〇、〇〇〇・〇〇
有價證券價格較差	[illegible]
諸貸ケ金	[illegible]
年賦定期貸付	[illegible]
引受手形	[illegible]
商業手形當座貸越其他諸短期貸付	[illegible]
コールローン	八〇〇、〇〇〇・〇〇
貸付有價證券	[illegible]
他店へ貸	[illegible]
支拂承諾見返	[illegible]
諸假拂金	[illegible]
所有有價證券	[illegible]
營業用土地建物	[illegible]
所有動産不動産	[illegible]
金銀	[illegible]
合計	四三七、六二三、一九七・八二

負債	
資本金	二〇、〇〇〇、〇〇〇・〇〇
諸積立金	[illegible]
未拂配當金	[illegible]
債券發行高	[illegible]
未拂債券元利金	[illegible]
政府諸貸下金	[illegible]
道金庫其他	[illegible]
諸預リ金	[illegible]
大藏省預金部借入金	[illegible]
日本勸業銀行代理店	[illegible]
他店ヨリ借	[illegible]
本支店間未達	[illegible]
支拂承諾	[illegible]
假受金	[illegible]
前期繰越金	[illegible]
當期純益金	[illegible]
合計	四三七、六二三、一九七・八二

利益金處分

當期純益金	[illegible]
前期繰越金	[illegible]
合計利益金	[illegible]

此ノ分配計算左ノ通

缺損補塡準備金	[illegible]
配當平均準備金	一〇〇、〇〇〇・〇〇
役員賞與金及交際費	[illegible]
配當金(年九分)	[illegible]
特別積立金	[illegible]
後期繰越金	[illegible]

右ノ通ニ候也
昭和十年八月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頭取 有賀光豊
理事 渡邊彌幸
理事 植野茂勳
理事 林美樹
理事 永野新
理事 野間一郎
監事 原田辰
監事 菊池進德
監事 ... 馬

朝報案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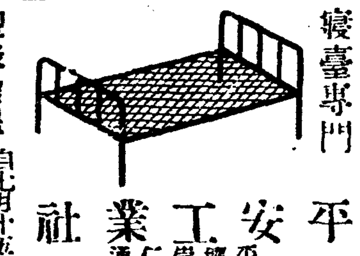
低利資金 一千五百圓、月賦三十二圓、擔保物件 四十錢식六十一回償還 希望者는 嘉會洞一ノ三三 電光一六七五番으로。

恩給 長期年賦低廉立替 他에比較할수업는事最有利 信用은勿論照會에 特히 ... 京城府積善洞一六○ 鄭商會

政府允許 六方醫法器 絶對療法

(說明書無代進呈) 醫聖閣

男子 性器强大 早漏防止器
日米佛醫界에서 大好評인新案サック用理想器特價一圓半 說明書進呈 直輸入品專門取扱 京城堅志洞五五 三寶商會

開業十五週年紀念投賣特賣 寢臺專門

平安工業社 平壤 營業部電話一八○六 工業部電話一八五五 振替京城一二三三二
自七月十五日至九月末日
型錄進呈 割引券進呈
新案生徒用机兼用椅子 ◎各學校當局者大好評

수어지板鐵脚製이지만 從來木脚式보다安價
一組 ¥4.20 一、二年用
一組 ¥4.70 三、四年用
一組 ¥5.30 五、六年用
一組 ¥5.90 中等學校

辯護士 尹轍均
民刑事事件誠實取扱
大邱府京町一丁目七九番地 長電話一五一三番

物理醫療師 生活線第一有望
最新最高物理醫學 責任養成
院長은我國綜合電醫의 創始者로써 東京電醫學校學長이고、斯界電醫에有名한巨頭이다
永久的醫師同樣의資格을獲得하야衆人의尊敬과 生活의 安定을得할者는 必히 今期에入學하라 不許함
本院의 資格證書로서自由開業이되며 ... 永久安全하고有資格인 養成所는本院以外에업다
◎來院하면一目明瞭 希望者는規則書請求하라(郵券)
認可京城高等電醫講習院 附東京電醫學校實習院 京城府黃金町三ノ三四四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動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流行歌 劉道順作詩 江口夜詩作曲
능쓰른비녀
蔡奎燁
人氣白熱化!!
콜럼비아레코-드

資生堂洗濯石鹸
자생당빨내비누

本品의特徵!
一、最高의品質、最低의價格
一、芳香、거품이極히佳良
一、손을안것칠게、살결은안傷하게
一、洗濯後에不快한내음이안나고쓰기조타
東京·銀座 資生堂

學園騷動新傾向
初等生盟休激增
思想背景이 減少된 反面에는
敎員操身糾彈이 流行

경무국에서 작년중의 학생동맹휴학사건에대한 조사를 한바에의하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합하야 발생건수가 삼십삼건에참가인원은 약삼천명에 달한다고한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것은전문학교에서는 동맹휴학 사건이하나도업는반면에 보통학교의 동맹휴학사건이 총발생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엿다는것이다

소화륙년까지는 발생건수와 참가 학생수가매년 증가하는경향을보이든바 칠년도 이후는 점차 감소하야 작년중에도 전교학생이 참가한 동맹휴학사건은업섯고 특히 보통학교에 잇서서는 년령의관계도잇서서 대개사학년이상의 생도뿐이라는데 근래 학생의맹휴사건이 감소하면서는 사상적배경을 가지고 동맹휴학을 하는사건이 적어진반면에 교원의 부정행동과 그품행의악화를 규탄하는의미의 동맹휴학이 그태반의 리유로되어간다한다

보통학교아동의 맹휴는 거의전부가 교원배척인데 그리유는 교원이 추첩을 하엿다든가 또는 주색에 란잡스러게 빠진다든가 혹은 학교에서 녀학생만사랑하고 남학생을 구타 한다든가 하는등 일종의 진투심으로 배척하게되는것이 만타한다

大邱府內의 滯納者激增

【大邱】 대구부에서는 세금체납처분한 건수가약 삼천여건이나되다는데 그중에 동산차압처분이 약삼백여건에대한 금액이륙천사백여원이라한다

渭原對岸에 土兵團突現掠奪
占滿洲部下二十餘名이 人質拉去
警官隊越江追擊中

【警務局着電】 십사일 오전열시반경에 계통이불명한 무장단이 평북 위원서사장(渭原郡舍長)줄장소의하류 삼십정의 대안에나타나때마침소항(溯航)중인 만주인범선 십척을습격하고 략탈중이라는 급보에의하야 위원서로부터 경부보이하 십일명과사장출장소로부터 순사부장이하 네명이 현장에출동하야경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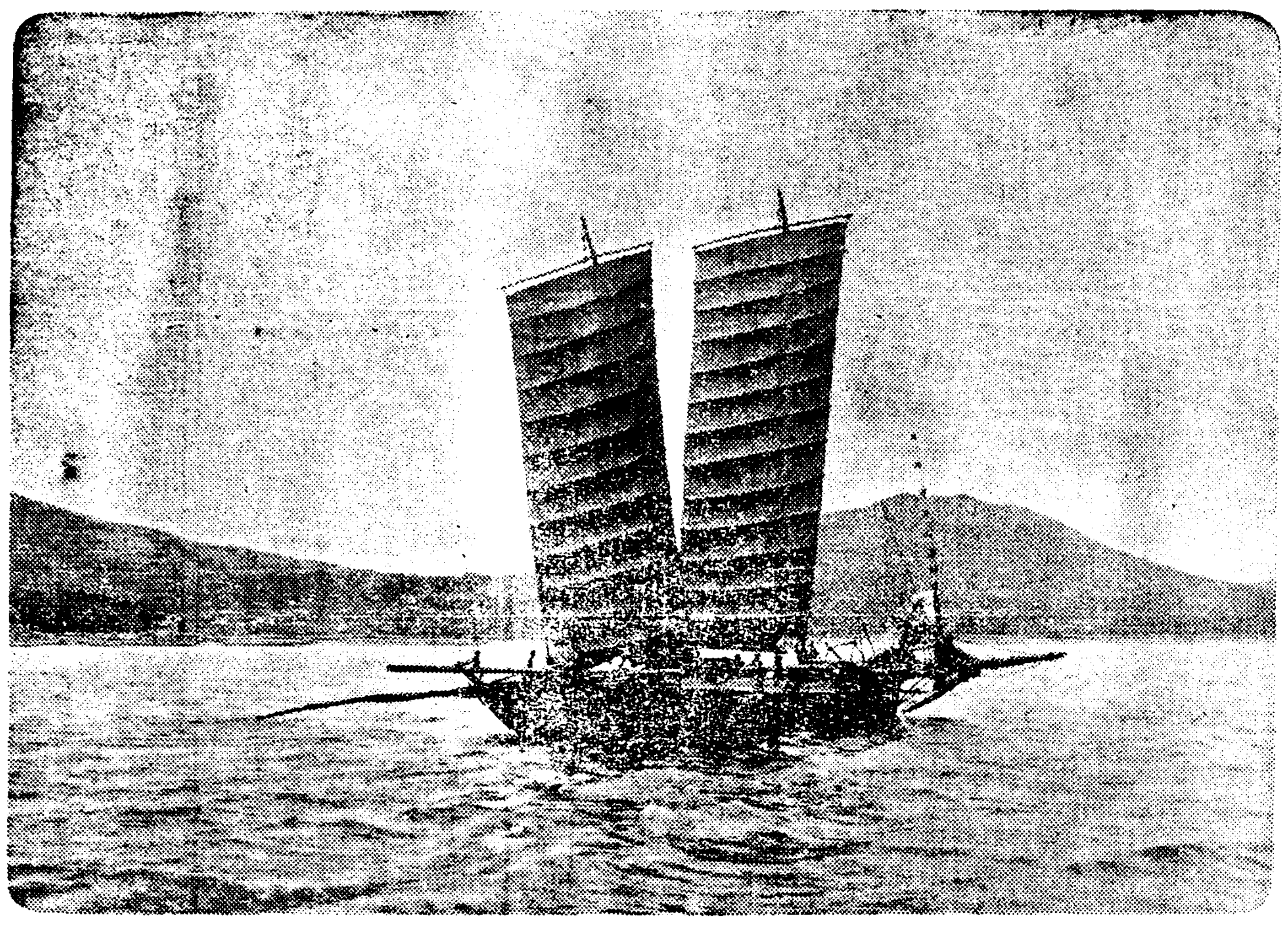
◇別報!! 전긔무장단은 두목을점마주(占滿洲)라하는 바마적의 일당이십명으로 즙안현제이구유수림자(安縣第二區 楡樹林子)방면에 이동하야 위원서사장출장소의바로 대안인 정경(井境)뒷산에잠복하여가지고 소항중인 고리선(高麗船)십척을 습격하고 적재화물을 략탈한후 선주이하십오명을 랍거하여가지고 전긔정경뒷산우에 도망하엿다가 다시랍거자팔명을 석방하고 다시고려묘자(高力墓子)방면에 도주하엿 이 판명되엇다 그리하야 무장단은 랍거자남어지 륙명과상당한물건을 가지고잇서 아즉멀리도망가지는 못하엿슬이라하야 급보에의하야출동한 위원서원과사장출장소원은방금추격중이라한다

漁獲中에 被拉

십일일오전일곱시경에 평안북도자성군려연면간하동(慈城郡閭延面幹下洞)전종정(田鍾貞)전익신(田益信)의 량명은 압록강(鴨綠江)에서 고기를 잡던중 대안 림강현마강루(臨江縣馬江樓)에 상륙하자마자 세명의마적이 나타나 전긔정의신을 붓드러간는데 전종정은 겨우 도망하야 낭올면하여강을 헤엄처 도라와서 중강서 간하동(中江署幹下洞)출장소에 이를 급보 하엿슴으로 출장소원 오명이 출동하야 활동하엿스나 이미 전의신은 붓들려가 후이라 이를 추격하야 약십여정의 지점에서 세명의 적을발견하고 사격을 하엿스나 도주하여 버렷슴으로 오후세시 우선조선대안으로 도라와다한다

共產黨關係의 三氏滿期出獄

중국공산당(中共)사건 관계자 황구룡(黃九龍)(三○)은 그간서대문(西大門)형무소에서 사년징역을 복역중 십오일에 만긔출옥되여 시내교북동(橋北洞)교북려관(橋北旅舘)에 투숙중이며동일 함피 함북공청(咸北共靑)사건의 현초득(玄初得)(三七) 최석순(崔錫淳)(三七)량군도 삼년징역을 다맛치고 서대문형무소출옥후 역시교북려관에 투숙중인데 각기 수일내에 고향으로 도라가리라한다



◇—布帆無恙掛秋風—(昨日仁川所見)

阿片强要튼土兵
同胞를毆打致死
阿片收獲期를타서出沒하며
人質拉致等이頻頻

【咸興】 함흥도 대안내시궁(內矢弓)경찰분주소(警察分駐所)원의 말에의하면 지난십이일 오후여덟시경에 십칠도구 삼포리(十七道溝三浦里)조선인 리인규(李仁奎)방에 각히장총을 휴대한 토병점산호(占山好)의 부하십사명이 침입하여 리인규의 아우레규(禮奎)와 지규(智奎)의 두명을 인질로 랍치하여가지고 하류방면을 향하여 가는도중 십륙도구 상진부동(十六道溝上鎭富洞)에서 다시만주인 가홍성(賈興成)를 랍거하엿다는데 그때부근인들이 목격한데 의하면 랍거자(拉去者)는 조선인륙명 만주인일명도합칠명이라고한다 그리고십오도구대전자(十五道溝大甸子)부근에 잠거한 련합토병단의 일파급 문명군(文明軍)의 합체단오십여명은 십이일저녁 동구칠형제목척천(七兄弟木尺川)으로 이동하엿는데 그중십여명은 십삼일오전세시경 동구하삼포리(同溝下三浦里)에 출현하여 조선인 박홍근(朴弘根)외오호로부터 아편이백메와 량곡오두를 강탈하여가지고 돌아가는도중 동구서곡리(同溝西谷里)손모(孫某)방에 이르러 아편을강요타가 불응하자 동인을무수란타하여 현장에서즉사식혓다

【咸興】 장백현 경무국장의 정보에 의하면 림강현오륙칠도구(臨江縣五六七道溝)일대에잠거중인 오백여 토병은 근일중 장백현내에 침입하여 각지 로병단과 합대하여 아편수확이끗맛치고 수납(收納)할때에 수목의 번무를 리용하여 조선내지급대안경찰서원을 전부랍거하는 동시 강안(江岸)시가지 전부를습격하여무고 탄약기타 금품을강탈하여 만반의 준비를마추고 동원할긔회만 기다리고 잇는중인데 이런정보를 바든함남국경경찰서원 장백현 각경찰서에서는 주야업시 률실를 엄중한 경계진을 펴고 잇다

各私立病院의 退院者消毒團束
京畿道衛生課서

장질부사 적리 『파라지부스』등의 각색전염병이 점점 만연됨을따라 부내각공사립병원의 병실은 전부 초만원이되는상태인데 사

驪州에 豺患

지난구일 오전두시경 경긔도려주군 개군면하자포리(驪州郡介軍面下紫浦里) 조명성(趙明成)의 돌재딸 립분(立粉)이가 그의 할머니와함께 방에서 잠을 자든중 별안간 늑대한머리가들어와서 립분이를 무러가는데 할머니의 우름소리에 놀라깨여 집안사람들은 동리사람을 총출동식혀 추격하엿스나 그집으로부터 약 오십간쯤되는 지점에서 머리와 내장만을남기고 전부먹어버린것이 발견되엿다한다

十四歲少女出家
家族이搜查願提出

시내 혜화동(惠化洞)삼십삼번지 박병갑(朴秉甲)의장녀 정희(貞姬)(一四)라는 소녀는 십일오전때쯤하야 무단히 집을나간후 우금도라오지안허 집안에서는 걱정하던끄테 십오일 소관 동대문서(東大門署)에 그수사원을 제출하엿다

聯合土兵五百餘
朝鮮內侵入을劃策
咸南北警察非常緊張

雄基羅津兩市被害
倒壞、浸水四千戶
漁船破碎도六十隻

【警務局着電】 십삼일이래 함북일대를 엄습한폭풍우때문에 특히 웅긔(雄基)와 라진(羅津) 지방의피해가 심하다는바 십사일오후네시까지에 판명된 피해상황은다음과갓다

◀雄基地方
一、家屋全潰一三戶 半潰二六戶 浸水床上六一戶 床下二、七四七戶
一、道路流失決潰 二一個所
一、人畜被害 溺死二 行方不明一
一、田畓流失埋沒三町步 浸水三五町步
一、農作物被害 八五町步約五千圓
一、漁船沈沒及流失三六隻 破損二七隻 行方不明三隻

◀羅津地方
一、人畜의被害 負傷一 家屋의流失及全潰一戶 浸水床上一三六戶 床下四七一戶
一、道路流失決潰三個所
一、橋梁流失決潰六個所

전긔와가티 웅긔라진 두지방의피해중 인명의사상이오명 가옥의류실과 전반괴가 사십일호 침수가옥이 삼천구백칠십일호 어선의피해가 륙십오척의 다수에 달하엿다한다

鐵道被害不少

십삼일 부터 북조선지방을 습래한 호우로인하야 나타난 피해에대하야는 북조선 철도관리국으로부터 철도국에들어온 전보에의하면 다음과갓다 십삼일밤부터 웅긔(雄基)웅상(雄尙)간의 선로약백『메돌』은 토사붕괴로 인하야 불통이되고 십사일 정오에야 겨우 복구되엿고 동일오후 다섯시 현재 웅긔역구내는선로 이상한자의 침수를보고 철도관사는 전부마루밋까지 침수되엿스며 가재가류실된집이 십칠호에 달하고 웅긔역(雄基驛)의 용인 최대어(崔大漁)의안해는 밋처피난하지못하야 사망하엿다 더욱 웅긔읍내의 가옥피해는 전궤(全潰)십일호 반궤 이십호 침수가옥은전호수의 반수에달하고 교량(橋梁)류실십일개소 어선(漁船)류실이약오십척에달하엿다

香奠五十圓을
一部遺族은拒絶
咸興大量轢殺事件의그後消息
負傷者一名又復死亡

【咸興】 지난구일밤 함흥서에서돌발한 미증유의 대철도사고는 십이일에 김병학병원에 입원치료중이던 중상자이명이 또사망하여 사망자십오명 중상자이명이라함은 긔보하엿거니와 십삼일밤에 이르러서 입원환자중 문보련(文輔連)의 누의동생 주순(朱順)이가 또사망하엿는데 이로인하여사망자는 전부 십륙명에 이르고 한영림의장남 긔돈(基敦)(七)이 치료중인데 생명만은 겨우 보전할듯하다 그리고 십삼일 조철회사(朝鐵會社)에서 각유족들에게 향전(香奠)으로 오십원식지급하엿는데 현장에서 유족중 한홍달(韓弘達)(六○)(한약로의부친)와 유종선(兪鍾璿)(유정옥의부친)의량명은 그것을거절하엿다 애절한 리유에대하여 전긔 한홍달은말하되 자긔집은 늙은내외와 죽은사람의처자 오명전부팔명이 오로지 죽은아들의 한팔로 살어왓는데 이번불의에 철도에처여 죽여버렷스니 일곱식구는 다만죽는 한길밧게업다하며 전날경찰서에 오라고하여갓더니 하는말이 이번사변의 원인은 전부 피해자에게 잇스며 철도에 아무과실이 업는듯 하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보낸돈이라는 오십원을 주니 자긔아들이 놀너나간것이 잘못이라하엿다한들 『후미게리』번인(番人)을 회사에서 두지안햇다는것과 또 목책(木柵) 가튼것도 업섯다는것 그리고 운전수가 사람을치면서 사십간이나 밀고나가도록 정거를 안엇다는것등 모든잘못이 회사측에 잇다고생각된다하며 그리고도 청년한사람죽인데 오십원을 준다니 그것가지고 살아갈수가 잇다면 모르겟스나 한달도 가지못하겟슨즉그런걸바더서무엇하느냐하엿다

깨진사랑飮毒淸算
蓮建洞下宿에自殺騷動

시내련건동(蓮建洞)삼십오번지하숙옥김룡식(金龍植)방에 묵고잇는 림경자(林慶子)(二○)라는 녀자가 십사일 오후열한시경에다량의칼모친을 먹고 자살을도모하야 고민하고잇는것을 집주인이 발견하고즉시 종로(鍾路)삼정목십륙번지 정구충(鄭求忠)병원에 입원식혀 응급치료중이데 십오일 정오까지 아직혼수상태에 잇다는바 생명은무사한것갓다하며 그자살하려던 원은 사랑하는련인에게 버림을바고 비관한결과이라한다

白茂、惠山延長
九月一日에開通
新驛名도모다作定

철도국의 금년도 개업예정선은 각건설공사가 순조로 진행되야 그첫개업으로 오는구월일일에우선 백무선(白茂線)이십이『키로』일부과 혜산선(惠山線)이십구『키로』된부분이 각각개통되며 업을개시할터이데 그구간의 각정거장이름에 대하야 연구하든중 백무선은 다음과가튼 세역과 혜산은 네역이 각각신설되기로결정되얏다

◀白茂線＝二二粁一
山羊驛(既設驛)六粁七
西頭(新設驛)六粁六
延坪(同)八粁八
延岩(同)

◀惠山線＝二九粁七
白岩(既設驛)一一粁
嶺下(新設驛)九粁五
南中(同)五粁一
生長(同)四粁一
鳳頭里(同)

東門署에不時花
二百女給언파레드
엉더리洗濯쟁이의膽物

십사일 오후열시경에 시내 동대문서(東大門署) 박(朴)형사가 종로(鍾路)륙정목일백사십구번지 김윤배(金允培)를 체포하여와서 목하엄중취조중인데 그는 시외 신당리 세탁소 『그린퀸스타』상회 외교급 집금인으로서 금년삼월경누터 시내각『카페』의 녀급만을 모조리 전문으로 차저단이면서 갑빗산비단옷을 세탁주문바더가지고 그대로 전당혹은 팔아서 소비한것인데 취조에 자백한것만해도 칠백사원어치 물건이고 그피해자가 전시내에 무려이백여명의 카페녀급이라는데 이사건으로 인하야 동대문서 사법계는 그피해자인녀급이백명의소환으로 때아닌꼿치핀모양이라한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弱한低氣壓은 九州南西海上과 日本南海上에잇고 高氣壓은오ー츠크海에서 日本海로떠젓고 中國大陸에서 黃海에걸처서는 氣壓配置가 不安定하다 滿洲朝鮮은 개이고 京城平壤에는 안개가잇스며 九州中國은 大槪大氣가조호며 其他는 흐리고 곳곳이비가오다

昨日氣溫 最高三一、五 最低一九、六
今日正午 二九、五

運動競技
全日本連覇目標
養正陸上
十八日에出征

中等陸上競技界의王座 養正高普는 來二十四、五兩日間 東京神宮競技場에서열리는 日本學生陸上競技聯合主催의 第二十一回全日本中等陸上競技對校選手權大會에 出戰케되여 來十八日午後三時 京城驛發列車로 出征할豫定이라는데 同軍은 昨年에도 同大會에 參加하야 全日本各地에서 雲集한 二百餘中等校를 제치고 覇權을두러된이라 連二年制覇의 熱望이불타고잇서 一行의活躍이자못 期待된다

▲監督金守基▲主將吳爵泳▲選手孫基禎(長距離)、金亮煥(短距離)、李景奭(短距離)、馬鎭國(走幅、砲丸)、白承旭(鐵槌、砲丸圓盤)、張聖鏞(圓盤、走高跳)

陸上豫選

來八月廿九日 大連에서 열리는 朝鮮、中國、滿洲의 交歡陸上競技會에 出戰할 朝鮮代表選手豫選會는 豫定과가티 十五日午後一時四十五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열린바 이날夕刻까지의 成績은 다음과갓다

【百米】1韓若鎬(延)一一秒一 2金萬式(平南)一一秒二 3石崎(京)
【八百米】1柳長春(延)二分四秒九 2白南鎬(敬)二分五秒七 3湯龍煥(敬)
【四百米】1金仁植(延)五一秒九 2李尙榮(平南)五二秒一 3金萬式(平南)
【投砲丸】1松崎(高商)一一米三九 2秋野(延)一一米三

甲子園中等野球
千葉16 石川9

大朝主催 中等校優勝野球大會第二日의 石川工業對千葉中學戰은 十五日午前九時부터 阪神甲子園球場에서 千葉中學先攻으로開始된바 結局十六對九로千葉中學勝

千葉 400 402 150—16
石川 001 001 412—9

大分10A 北海0

【大阪電話】 中等野球 第二日의 北海中等對大分商業戰은 十五日午後 零時부터 甲子園球場에서 北海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十對零으로 大分商業勝

北海 000000000—0
大分 12200140A—10A

全朝鮮庭球
開城全、張組優勝

【長湍】 長湍庭球俱樂部主催의第二回全朝鮮個人庭球大會는 지난十一日午前十時부터 同俱樂部코ー트에서 行한바 參加팀四十一組中에서 開城의全興喆、張殷淳組가優勝하엿다

【準決勝】
開城(李鼎完 金明相)4…3 京城(金田亨 李殷基)
開城(全興喆 張殷淳)4…3 京城(白樂? 白秋山)
【決勝戰】
開城(全興喆 張殷淳)4…3 開城(李鼎完 金明相)

體育댄스講習會
十五日부터三日間

學校體育舞蹈의 權威者로서 널이알여진 東京齊井一二夫氏를 講師로한 夏期學校體育舞蹈講習會는 朝鮮教育會後援으로 十五日부터三日間 京城師範學校講堂에서 開講키로된바 參加希望者는 開講期日內로 會場受付係로申請하야주기를바란다한다

文理大陸上快勝

【奉天】 文理科大學對 全奉天의 陸上競技 對抗戰은 十一日午後二時부터 國際運動場에서 行한바 七八·五對 四五·五로 文理大軍 快勝하엿다 이리하야 文理大一行은 全滿洲軍과 對戰코저 同夜 大連으로 向하엿다

마니라拳鬪戰績

【마니라特電十日發】 十日『마니라』에서 擧行한 日比職業拳鬪戰 大和對스피드、카라네라(東洋草)、勝田對조ー그란드와의 兩拳鬪試合은 各十回戰을行한바 모다判定으로 日本側이惜敗하엿다

慶北庭球爭覇
十八日、大邱서

【大邱】 朝鮮民報主催의 慶北庭球大會는 來十八日午前十時부터 大邱三笠町코ー트에서 開催할터이라는데 出場選手는 慶州(內鮮)、慶州(東部)、大邱(實業)、大邱(南部)、安東(北部)、慶州(中央)、浦項(南鮮)等 各地方豫選의 優勝者로서 興味잇는熱戰이 展開될것으로 期待된다고하다

小兒良藥 樋屋奇應丸
百發百中
育兒名藥의偉效
小兒病이면무엇이던지病症、稍費을不問하고이것한번이면一掃打開되오
主效 疳、보채고、身熱、氣絶、經련、綠便下痢、夜泣、疱瘡、發疹、胃腸病弱、其他衰弱한小兒
救急、治病、保健
大阪市北區天滿橋 樋屋合資會社
10—K—3

바다를닮이는 옷도와가치 輕快明朗한 健康美!
牛乳石鹼
紳士淑女나애기들께
No.37 共進舍牛乳石鹼株式會社

不老長生 田春秋
十圓 京城樓河洞四五ノ一 松岩莊

漢城銀行

ヒト(히도)輕油發動機
農林省甲位入選 商工省御推選
二馬力 二馬力半 三馬力半 四馬力半 六馬力 八馬力 十馬力 十二馬力
一、燃料의節約 一、取扱簡單 一、出馬力强大 一、堅牢하고故障絶無 (特約店募集、型錄進呈)
製產能率岡山第一位
(朝鮮配給所) 土肥發動機釜山出張所 釜山府大倉町一丁目 電話長一二六九番
本店製作所 日本岡山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話光化門二四九

甦生된●●●●●●●●
第一劇場
近日中落成●●●●●

Columbia
大獅子王盤再現!!
劉道順作詩
외로운길손
옷잇는 꿈
蔡奎燁
只今大京城은 이노래소래뿐!!
콜럼비아레코-드

皮膚病에
アスター(아스다)
상쾌하게가려움을멈추고 속히치유로인도
버짐、음부습진、무좀、백납、옴
그외에태독、부스럼에쓰면자극을주지안코、안전하게효험을봄니다
定價 三五錢 五〇錢 一圓 各藥店에서販賣함

어찌하리까?

부모는 나만믿고 의학공부하라오

문 저는 금년 십팔세 되는 중학삼년생이온데 양친이 계시고 형님이 두분계시는 중류가정의 막내아들입니다 그런데 부친께서는 회갑을 삼년을 압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큰형님께서는 사십줄에 계시는데 고 차형은 삼십줄에 계시는데 두분이 다 일정한 직업이 업서 전가족 근 십십명 식구를 늙은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큰형님께서는 근 이십년간을 변변히 추수를 비하며 아모런 한중고도 듯지안습니다 그러고 보자니 양친께서는 저에게 뒤를 두시고 여생이나 잘지내실까 하시는 모양이며 저도 자연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 부친께서는 중학을 맛치고는 돈잘버는 의전에 들어가라고 하시나 저는 조금도 취미가 업고 문희에 취미가 잇서 문학방면으로 한울 배우고 십습니다 문학을 위해서는 희생하고 십습니다 어찌하리까 하교하야 주시요 (一讀者 표生)

「생활안정」을 무시할수업소

답 사람마다 취미가 구르고 포부가 달라 이 세상 사람가는 길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현대에서는 성공에 반드시 경제적 조건이 못지 안습니다 생활을 하기위하야 노력도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한 것 뿐 아니라 성공함으로써 경제력이 생기는것이어 원숙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적 조건을 무시하고 무슨일을 하기 어려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절대로 불가능 하기도합니다 부모가의 희망을 쫏차 의학공부를해라 하시는 말씀은 일생을 살아오신 체험에서 어든바 「돈을 버려야한다」는 진리일것입니다。반드시 의사만이 돈을 만히 벌수잇는것은 아니지만 의사처노코 생활안정은되려니 생각하신것이 확실하는사람이업스니까 ... 당신이 문학에 몸을 밧치겟다하신다 ... 어떠케되시겟습니까?
그러한 생활에서 ... 대문호가 되는데는 아모의미가 업습니다 ... 다 소설가가 소설을 쓰면 원고료의 수입이 업스면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문학에 그만한 열심을 가진것은 조흔나 생활을 반드시 ... 드리매어 신용히 처리하시는것이 조흘까합니다 사람마다 다 망업는사람이 업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의 길로 서서히 나아가는 사람이 몃사람됩니다 ... 현대에서 ... 업니다。

家庭

철따라 입맛도 사치해진다
향기러운 송이버섯
벌레먹은것은 소곰물에 당굴일
물에 오래씨스면 못쓴다

송이맛을 모르는 분은 음식의 예술을 모르는 분이십니다 그 고운 향내와 그 깨끗한 빛갈이야말로 곳 시를 씹고 그림을 맛보는듯 한 늣김조차 업지를 안읍니다。선들바람과 한께 노파지는

사랑량반의구미

를 무엇으로 만족케 해드릴까 조금도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요。두룸으로 걸리고 채반에 널린 송이는 그런 안ㅅ손님을 위해서 반찬ㅅ가가를 장식하고 잇는것이 아니오니까?

송이는 참나무버섯보담도 담백질이 풍부하야 영양으로도 비교적 조합니다。단지 힘줄이 만흔만큼 소화에는 나뿌다하오나 주의해서 만히만 잡숫지 안하신다면 그뿐이외다。물론 좋조림으로 조린것도 잇고

소곰으로재운것

도, 잇서 어느철에나 먹을수가 잇지만 그것은 빗갈도 변하고 향내도 빠집니다。아모라도 송이는 그런것보담 제철의 생생한것이라야 하고 또 제철중에도 무더운 삼복중보담 선들바람이 이는 처서호라야 합니다

× 송이는 갓이 다퍼진것도 재미업고 아주 갓이 채피지 안한것도 역시 재미업고 꼭 방쫌 피어오는 것이 제일 맛잇습니다。그러케 꼭

알마즌것을산다

는것은 송이고장이 아닌 이상 좀 곤란하겟지만 될수 잇는데까지 활짝되것이나 아조 피지 안한것은 피하시는 것이 조흡니다。그이외에 송이를 고르는데 여러가지의 방법이 잇습니다。첫재로는 것미테 알븐껍질이 잇나 업나를 볼것이니 그 알븐 껍질은 딴지 이틀이 상한 되면 떨어저 버리는것이며 둘째로 갓이 짜개서나 안짜개서나를 볼것이니 갓이 짜개진것은 아조 여러날 두고 물을 작구 뿌린 까닭이요 셋재 갓이 큰게 보다도

줄기가굵은것을

골을 것이나 갓보담 줄기가 더 향긔롭고 보기 조흔것입니다。그뿐이 아니라 자칫 잘못사면 버러지 먹은것을 사기도 첩경의 일이매 애초 손끗으로 눌러 보아서 좀 탄력이 잇는 것을 사셔야 할것이니 탄력이 업는것은 여러날 묵엇거나 버러지가 먹엇기 쉽습니다。만일 버러지가 먹은 것을 사섯거나 또 버러지가 먹엇든지 안먹엇든지 미심스럽거든 잠ㅅ간 소곰물에 살짝 담것다가 꺼내시는것이 조흡니다。

× 번래 우리네 가정에서는 송이를

넘어오래ㅅ동안

물에다가 씨스시는 모냥이나 그것은 향긔가 빠저서 못씁니다。또 갓 껍질은 전부 벗기어 버리시는 모냥이나 그 역시 악갑습니다。갓껍질을 버린다는것이 귀엇든 것껍질을 정하게 씨서 그대로 잡숫는 것이 어떳습니까? 정히 벗기섯거든 그 껍질을 내던지지 마시고 된장찌개 가튼데 너허서 지저 잡숫는것이 어떳습니가。

송이는폭소고기

와가치 잡숫는줄 아시는데 논 그러케 잡숫는 것이 고기맛도 더나고 송이맛도 업서지지 안코 해롭지 안치오 만은 듯이 쇠고기 업시는 송이를 먹을수법도 업습니다。생송이를 가로 쪼개어 진간장에 적어 먹어도 조코 생선찜과 가튼데 너허 먹어도 조흡니다。그외에도 밥짓는우에 송이를 잠ㅅ간 쪄내면 밥맛조차 향긔롭고 송이를 쪄난물로 말근장국을 끄리면 국맛이 향긔롭습니다。단지 갑이 비싸서 맘대로 사먹을수 업는 것이 백옥의 한이올시다

家庭메모

흰무명옷을 하야케빠는법

흰무명옷은 뜨거운물에 빠라야 때가 잘집니다만 은 처음부터 뜨거운물에 당그면 때가 빠지기커녕 것때가 응속으로 숨어드러가서 물느린것처럼되여 도리혀 안빠집니다 그럼으로 흰옷을 빨때는 번저찬물에 대강 주물러가지고 그다음에 뜨거운물에 비누를 탄데다가 너어서 빠러야됩니다 힌것 빨때 제일주의해야할것이 이것입니다 먼저 찬물에 당거주물를때는 소-다를 약간타서 하십시요 몃번 주무르면 웬만큼때가 국습니다 그러다음에 정말로 뜨거운물에 빠십시요

◇ 새무명옷을 빨때 빗이 낙지안케하는법—세탁하기전에 빗이 빠지지안는 약을 먼저 맥입니다。그것은 물한되에 소백반(燒明礬)을 차사시로 네다섯 사치풀러서 그속에 옷감을 오분내지십분동안 당거둡니다 그런데거기에다 다시소곰을 네사시만 터면 완전히 빗이빠지지안케됩니다 비단실과무명실 석거짠 옷감에는 이소곰대신에 『단니酸』이란약을 번저말한물에 타면됩니다

世界文藝童話集

별의아들 — 英國 오스카·와일드 作 ⑤ 崔秉和 譯

一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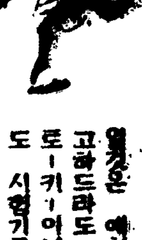
바로 그때 갑옷두구룸한 한사람의병정이 나왓습니다 『문안으로 드로 오겟다는놈이 어느놈이냐』 『거지입니다。아해거지입니다。못드러오게 지금 쫏고잇습니다』 파수병정은 대답하엿습니다。『거지냐 그러면 그놈을 노예(하인가든것)로 팔어버려자 포도주한병갑의 돈을 밧을터이냐』 병정은 말하엿습니다 그러는 간 지나가든 로인한사람이 『내가 삽시다』하고 말하엿습니다。그리고 병정의손의 돈을 주고 별의 아들의 손을 단단히 붓들고 문안으로 드러갓습니다。그로부터 거리를 몃군데 지나서 두사람은 조고마한 집압헤 이르렷습니다。그집은 무성한 석류나무에 차여잇섯습니다 로인이 소아이아구(實?)를 문에대니깐 문은 도사시 열렷습니다。그래고 못(蓮)으로된 층계를 다섯층 ... 로인은 비단헌겁을꺼내서 별의아들의눈을 단단히매고 자기압헤세노코 걸녀갓습니다。눈에맨 헌겁이 풀녀지자 그곳은 어느 곳 지하실(땅아래잇는집)이틀 로인은 엽마안되여 나무 접시에다가 곰팡난 빵을담어서 별의 아들에게 주면서 말하엿습니다。『자—이것을먹어라』 그리고 또 곱부에 짠물을 담어 내오면서 말하엿습니다。『자! 이것을 마시여라』 별의아들은 생각하엿습니다 ...

... 의말한 숩으로 왓습니다。숩모양은 박여서보니간 퍽아름답고 여러가지작은새들이 재절거리고 잇고 향기가조흔꽃이 피여잇는것 갓습니다。숩모로 드러갓드니 하지안코 숩속으로 드러갓드니 그속은 놀라지안을수가업섯습니다 아름다운것은 거죽뿐이고 속은 가시나무와 칙덩굴이 길길이 엉키여잇섯습니다。그속을 아츰부터 저녁때까지 가진고생을 다하야 차저보앗스나 별의아들은 어느곳에서나 흰금도을 차즐수가 업섯습니다。그는 훌적훌적울면서 숩박그로 나올냐고 하엿습니다。금돈을 못차즈면 백번 가죽채죽으로 맛는까닭이엿습니다 그러데 그때 그는 풀덤불속에서 누가 신음하는듯한 소리를 들엇습니다

수영중다리에 쥐가오를경우

긴혼물에드러가 헤엄을 치다가 다리에 쥐가나슬 경우에는 황겁히 구려서는 안됩니다 그런때는 아모리 다급할찌라도 될수잇는데까지 침착한 태도를 취하데 먼저 물박게서 심호흡을한다음 물속에 가라안자 쥐가난부분을 잘주무르고, 발고락을 발딱재키면서 힘을줍니다。이러기를 몃번 계속하면 나어집니다。그래도 낫지안흘 경우에는 쥐오른 다리는 조곰도 놀리지말고 헤엄을처서 물박그로 나오는수밧게 업습니다。다 쥐오르는것이 한번나면 버릇이되여 한동안 나엇다 치더래도 다시생기기 쉬우니 주의해야할것은 물로 부득이한 경우가아니면 긴혼물에안드러가는것이 상책입니다

演藝



全發聲映畫 春香傳 京城撮影所提供

조선서 발성영화가 이영화로 처음이요 겸하야 타이틀이 「춘향전」인만큼 흥행가치가 만점일것은 예처할수잇다。발성이라고하드래도 짝은드판이 아니라 로-키-이니 조선의 발성영화도 시험기를 한번넘어뛰어 당박에 제길로 드러섯스며 배경도 쎄트를사용하야 보려처를 영화하니만치 주목할점이 만타。

原作 李光洙 撮影 李明雨 錄音 李弼雨 出演 朴齊行 林基翁 韓一松 李鍾哲 盧載信 金蓮實 文藝峰

看護婦行 (十) 嚴興燮 作

어떤 사업이라 조금하게 굴어서는 안될것을 깃기고 나는 부인과병원에 간호부로 취직해잇는 여성이다。

내가 간호부가 될려는 의도는 숙희 그자신의 ... (숙희와의관계) 지금까지 — 노라 ... 심해나라왓다 하려는 의도는 숙희 그자신의 그양당하고 청량하여보는 자기 현설을 자기의힘으로 정복(征服)하고 영아까지 타개하고 ... 그건실(實實)하고 ... 한 성격에 감격했기때문이다。

세상에는 남자수효보다도 여자수효가 훨신만으며 신랑감보다도 신부감이 훨신만코 로총각보다도 로처녀가 훨신 더만타는것을 그리고 흉어비보다도 흉어미가 ... 나는 일주일이면 한두번은 C병원에 가 숙희가 근무하는 C병원에 가 ... 사나이 ... 을 방문하는 것이엿스니 그것은 C병원을 경영하는 C여의사가 나와 친절관계를 가지고 잇는때문이다

숙희는 C병원에서 먹고 잔다 그에게는 C병원이 유일한 안식처다

『고향에 가보실생각은?』하고 내가 말주머니를 벌니면 『고향이요?저-ㄴ고향이업서요 호호』

숙희는 어느틈엔지 얼굴에애수가 떠올으는 것이엿다

그는 처번 C병원에 입원환자의약엔 전화나 밧고 ... 섬부름, 요강부시기, 병원마루걸레질 차기, 휘분우에 물주기피못은 봉대쪽빨기 고름나은 카제 쭉어나 빠는 아래ㅅ일까지 이엿스나 지금은 C녀의사의신망을엇어 제약까지 자긔손으로 선수로하는 약제사로서의 존재와지위를갓게되엿다。

나는 그렇처럼 이숙희와 친하게되엿다。

『참, 숙희씨는 결혼하실생각업음니까?』하고 그의표정을 읽으면 『—결혼이요? 나는독신주의자랍니다!』하고는 엇던때는 너무도 로골적인 히스테리ㅅ냄새를 발산하다가도 또엇던때는 『에그 선생님두 나갓은걸 누가 데려가요?밥만축이려고요』하고선 동그래한 양볼에 옴딱 동그람이를 그리면서 방그래웃음을 띄우고는 애교를 피우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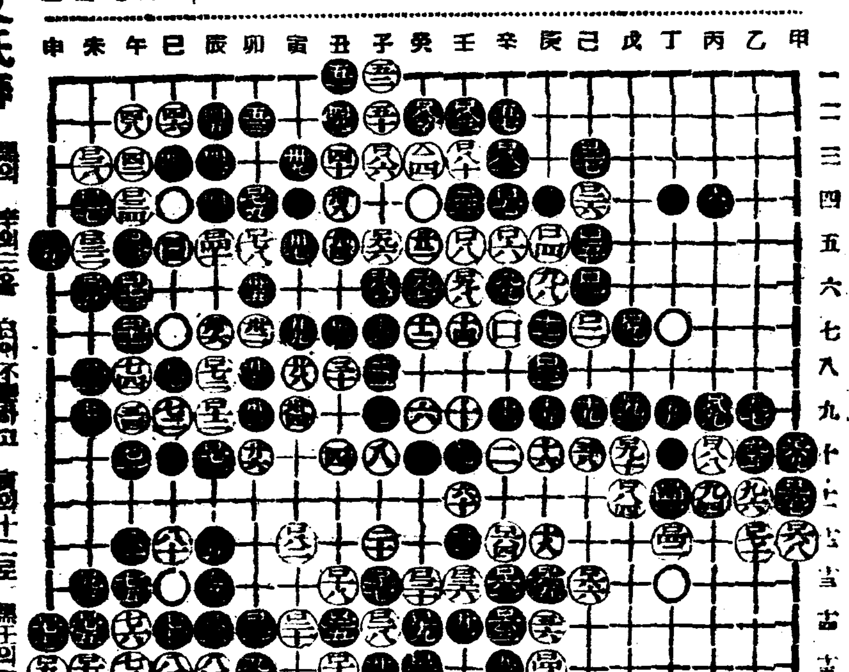
이럴때엔 나는 용긔를엇어 『아-니 농담으로 생각지말어요 내조으곳에 소개해드릴러이니까…』하고 진실한태도를 보이면숙희는 거이어린아이들처럼천진한 명랑성을 보이며 『아-니 선생님 참말이서요』하고선 내 표정을 훌는다。

... 다섯층 ... 등은 ... 잇는 것이 ... 로 ... 하고 쾌활하게 웃음꽃이 나아하고 나는 좀 새시대의 진보적 청조관이라도 가지고 잇다면 나는 내가 발견해논 가장 훌륭한 배우자라고 생각드는 호의(好意)를 가지고 개해주려는 ...

그 한녀자란 현실 사회에서 혼이 차저낼수잇는 전형적타입일것도갓다。숙희는 갓서른에 두살이모자라는 묘령녀성이다。그는 경상도 어느 시골 소작인의/딸이엿다 열아홉에 엇던지주의 아들에게 시집을갓스나 그남편이 동경에 건너가서 유학하고 돌아왓슬때엔 말숙한 양장미인을 다리고나와서는 자긔를 무식하다고 학대하야 철국 리혼까지 당하게되자 그는 불가리 일어나든 엇던결심을하고 서울로 뛰여 올나와 엇던 친척집에 의탁하고서는 일변밤으론 바누질품을 팔어서 K녀학교에 단이며 보통과 졸업정도의 실력을 충분히 엇은뒤에 교장의 소개로 엇던여의사가 개업하고잇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1】

白 閔仲植 / 黑 先 柳鎭河



◇素極文氏評 黑의 辛의三을 白이 不取하고 寅의十三으로 黑子의二를 白이 吃하고 寅의十二는 白이 未取利을 分明히 ... 比較에 不及之嘆이 不無하나 ... 讀者之反을 推此 ...

라디오

◇午後六時三〇分 八月에 난 偉人이야기 (其一) 나폴레옹 朱金顯
◇同六時五五分 兒童 特別講座 (二) 山에서 놀때의 注意 崔義順
◇同八時 農村特別講座 (四) 山村과 副業 (二) 鄭 寅 燮
◇同八時三〇分 라디오 드라마 「金반지」 李瑞求作 라디오·플레이·멤버 出演
配役 (仁順) 尹懷敏 안해…朴惠淑 엄지女子…金仙草 料理집보이…金璨雲 瑞昌(仁順의 동생)…李素然 女店員…金蓮實 大根…徐月影 아버지…朴齊行
◇同九時二〇分 레코-드 音樂
◇同九時三〇分 秋風感別曲外 一、秋風感別曲 二、사설난봉가 三、楊州歌 四、긴타령 五、창부타령 白牡丹 柳開東

十六日 (金曜)

◇午後六時三〇分 兒童劇 싀골할아버지 全一景 新興童人會 (配役) 어머니…韓和子 마리아(仁淑의동무)…鄭麗南 仁淑(그의딸)…林敬淑 할아버지…文 烈 아이스크림行商…鄭龍得 中國料理人…康浩星 演出 鄭英徹
◇同六時五五分 兒童特別講座 (二) 물에서놀때의注意 李在崑
◇同八時 農村特別講座 (五) 水稻栽培에對하야 (一) 朴善日
◇同八時三〇分 퐁라렴外 一、퐁라렴 二、新調가세타령 三、사설방아타령 四、처녀가 五、군방타령 閔亭植 許英淑
◇同九時 피아노獨奏 一、발스第九番…쇼팡作曲 二、發詩曲第三番 第三番…同上 三、發詩曲第三番…同上 四、롬도네스 A 쥬맷드 長調…同上 J·B·스트데니
◇同九時三〇分 伽倻琴散調와併唱 一、散調 (가)진양됴(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併唱 (가)短歌 (나)唱劇調 박타령 姜太弘 鼓手 韓成俊
◇同九時五五分—第一放送 國際放送 (외국방송중계)

十七日 (土曜)

◇午後六時三〇分 少年實談 少年探偵 李亨稙
◇同六時五五分 兒童特別講座 (三) 兒童의 衛生新聞
◇同七時 兒童特別講座 夏季害蟲에對한注意
◇同八時 農村特別講座 水稻栽培에對하야 (二) 朴善日 醫學博士 鄭求忠
◇同八時三〇分 流行歌今昔 一、鴨綠江의뱃사공 二、가시옵소서 三、順風에돗달고 四、먼동이터오다 五、아득한千里길 六、處女總角 七、님이여 잘잇거라
◇同九時 古談 忠則保命 伊奏 DK管絃團 姜弘植
◇同九時三〇分 歌詞 一、將進酒 二、漁夫詞 金花香 李月色 大笒 金鍋九 鄭永根

第一放送

◇午前一〇、三〇 (東)婦人의時間
◇午後〇、〇五 하-모니카 ◇同六、〇〇 (東)兒童音樂會 ◇同六、二五 心田開發講話 ◇同七、〇〇 兒童과家庭의밤 ◇同八、〇〇 (東)水上競技實況 ◇同九、〇〇 時事解說

曆

八月十六日 (金) 舊七月小 十六日 甲子·金·鬼·定
●宜祀·冠帶時刻에 ... 栽衣·動土·上樑·卯時·開市·納財에宜함
▲立秋八日 (陰七月十日) ▲處暑二十四日 (陰七月二十六日) ▲白露 (陰八月十二日)

病을곳처려면…먼저 胃腸을튼튼하게하자

病弱體에는食慾과便通을좃케하고胃腸을튼튼히하는「비다민B」라는榮養素가부족되여잇는새닭으로 病여오래살게되는것이니 무엇보다도 먼저 이성분을보급하시는것이急務입니다

사람의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는 여러가지 잇스나 그중에도 가장 중요한성분이 「비다민B」라는것입니다。이成分은 첫재로 모든병에 대한 저항력(抵抗力)을 도아주어서 모든병에대하야 예방과치료가되며 둘재로는 위장(胃腸)의活動力을민활케만들어서 먹은것이 모다 피와살로가게하며 자연적으로 변통(便通)을조케하여서 모든위장병을 미연에예방하고 근본적으로 곳처주는 천기한영양소(營養素)에 「비다민B」를 만히 포함한麥酒酵母錠 「에비오스錠」을 연복하시는것이 장예의오는 第一갓가운길일것입니다。

변통이자연히나오게됨

약 산약으로 변통에게신분의 胃腸은 몰시도 약하게되여잇스며 위벽(胃壁)은 약의자극으로 말할수업시 헐어잇기때문에 늘배속이 거북하고 변통이 조적못하며 구미가 돗지안음으로 아무련자양잇는음식물도 잘잡숫지를못하여서 몸은 점々 쇠약하여가며 병세도 더욱 중하게되여갈것입니다。

그럼으로 음식물도 소화조흔것을 차저서 큰 맘이나 흑음드려게 됨으로 음식불을보기만해도 구역질을하시게되나니 이것은 胃腸의 활동력이 약하야저서 약과자양분을 완전히 몸에흡수치못하게되는 까닭으로 그런것입니다。

즉 건강한째는 물론이요 허약하신째에는 평시의 몃배나「비다민B」라는 영양소가 필요한것이니 가 쟝 추천하시는바와갓치。强力비다민B劑에비오스錠을 연복하시면 기백력오내 몸에 ... 자양분 ... 완편히 ... 수케변통 ... 然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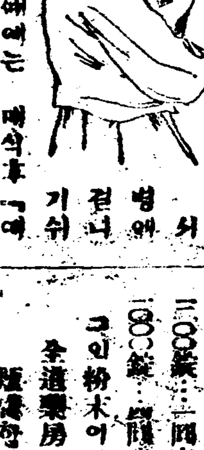
고질이된 만성위장병은 原因療法으로고처자

머리가 놀무겁고 변통이 조처못하시며 배속이 거북하신 이는 흔히 일시적듯는다고 위산(胃散)건위케(健胃劑)변비약 갓흔것을 사용하시나 이것은 먹을째만듯고 약만지내면 또다시 재발하며 더구나 인이백어거나 더욱 分量을 만히써야만 도재될으로 胃腸은서자극을밧게되야서 병세는 악화하게됨으로 반듯이 근본적으로 병근원을곳처주는「에비오스錠」으로 원인료법을하여주시지 안으면 안됩니다「에비오스錠」은 고질이된 위장병에 더욱 신기한효과가잇슴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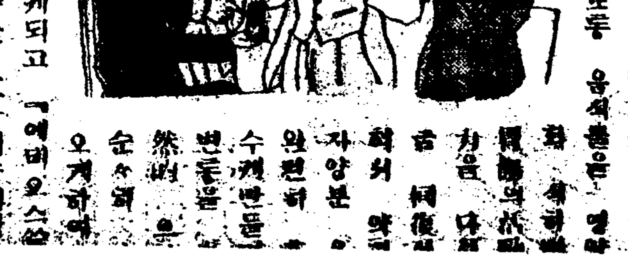
氣分도 상쾌케되고 「에비오스錠」을 속예쯤은 귀중한 二十여종의酵素(醱酵素)가 소화의 소화력을 強하야 병근원의약타를 속히해결케만듭니다。

여름을타고 발육이좇지못한애에게

어린애들이 반찬투정 밤두정을 하면서도 잘먹지안코 발육이조치못할때에는 신체는 점점 허약하야지서 병에걸니기쉬운것이여서 어린애에게는 매식후「에비오스錠」을연복식히시면 여름더위도 라지안코큰슈히 무병하게자라나게됩니다 그외 만성위장병·소화불량·각기증·주체·배탈·체산전후·체약증·氣不足·폐병·설사·위처에 특효가 잇습니다



—약 가—
七〇錠…五十錢
三〇〇錠…一圓六十錢
一〇〇〇錠…四圓八十錢
그외粉末이잇슴
各地藥房에서 販賣합니다



麥酒酵母 에비오스錠

東京·大阪 田邊商店

朝鮮各道의名瀑들

◆紙◆上◆瀑◆布◆展◆ (其五)

湖 岩

智異、漢拏는 金剛과 아울러 三神山의稱이 잇느니만치 그산속에 瀑布의奇勝도 수두하지만 그中에 가장有名한것으로 말하면 智異山에는 佛日瀑이잇고 漢拏山에는 天池淵瀑이 잇다。佛日瀑은 崔孤雲의古蹟이 만흔智異山 雙溪寺의 東北方에 잇는바 靑鶴峰、白鶴峰사이에 山頂이 깍가세운듯한 層岩絶壁에서 떠러지는 巨瀑으로 그高가 六十米突이라하니 과연 그러타면 九龍瀑보담도 八米突이 더 노픈셈이며 天池淵瀑은 漢拏山腹에잇는 七十二尺의 懸崖에서 떠러지는 名瀑으로 그瀑布가 내려찟는데는 深淵을 일우엇는데 물이澄淸하야 魚類가棲息함이더 水面에 비치어 宛然히 섬섬시의 짜내雲錦인듯하다

■春花秋葉의 … 傳說에 依하면 일즉 赤山때인가 濟州로 귀양가잇든 어느靑年선비가 山나물캐는 섬섬시와 서로 戀愛關係를 맷게 되바 한번 헤여진 以後론 다시 맛나지 못하고 兩方이 한가지로 애를 태우고 잇든니 그선비는 畢竟天池淵瀑에 몸을 던저 죽음에 이르럿고 그섬시도 비록 父母의 命을 어기지못하야 쇠징을 가기는 갓스나 알뜰한 情은 그선비에게 잇슴으로 밤이나 낫이나 눈물로 歲月을 보내다가 그섬시 역시 사랑하든 선비의뒤를 따라 이瀑布에 몸을 던저죽으니 오늘날 말로 하면 이 두男女가 이瀑布에서 愛를 淸算하엿다 漢拏山麓에는 또 正房瀑이란 海濱에 떠러지는 名瀑이 잇스니 長이 天池淵瀑에 미치지 못하나 獨特한 奇景을 가진點에서 이瀑布를 愛賞하지 안흘수업다 全朝鮮의 瀑布를 꼽자면 알리여진것만 치드라도 無慮 百으로써 헤일수 잇는바 그中에 五十尺以上되는 瀑布는 數十個가 넘으며 百尺以上되는 瀑布는 十指로 꼽을것이며 瀑布의 分布地帶를 便宜上區分할진대 北部朝鮮에 적고

■中部朝鮮에 만흔것이 만흐며 南部朝鮮에도 相當히 만흐니 이는대개 瀑布의存在에는傾斜가 緩慢한土山보담도 석로서 峻急한 石山을 必要로하는때문이다 그러나 北部에도 名瀑이 아주업는것이 아니다 明川七寶山의九龍瀑(鏡北)과 文川의 雲林瀑(咸南)과 安邊의 三防瀑(咸南)等은 거의北朝鮮의 代表的瀑布로서 그中에도 百五十餘尺의 絶壁에서 내려패는 三防瀑가튼것은 그長에 잇서서 北道의最高瀑임과함께 그近傍에잇는 藥水로해서 일홈더 世間에 宣傳하게되엇다

■西朝鮮에는 京義線 東林驛에 東林瀑이 잇스며 雲山 延面豊中洞에 역시 同名의 東林瀑이 잇스나 놀다三十餘尺에 지내지 못하는瀑布이다 크고도 景致조흔瀑布로는 江界의 龍水瀑과 厚昌의 天水瀑이니바 特히前者는 高이 三十餘丈이나 되는 巨瀑이다 中部朝鮮의 瀑布는西로 … 九月山의 龜瀑과 松禾 池城山瀑布는 人口에 膾炙하는 名瀑으로

■池城山瀑가 볼것은 數百尺이 되다하니 과연 그러타면 有數한 大瀑이다 江原道에는 金剛、雪岳、五臺等地에서 너무나 名瀑이 만흠으로 여기는 省略하거니와 南部朝鮮에 이르러는 慶尙道의 咸林洞瀑布와 海美、伽倻山에도 名瀑이 잇지마는 湖西에서는 丹陽의 三仙瀑과 奇絶하기로는 永同의深川 玉溪瀑이 湖西에 代表가 될것이며 南에 飛流百餘尺인 咸陽龍湫瀑과 三層으로된 梁山의 虹龍瀑도 有名하나 百二十餘尺의 淸道藥水瀑(淸道驛西南約二十五町)華岳山도 壯觀이다 湖南에는

■光州無等山의 龍湫瀑이 奇觀이나 求禮의 天曾瀑과 鄕의 水落瀑은 扶安의 百數十尺 더욱이 二百尺絶崖로 떠러지는同高를 가진 直沼瀑布가 아울려 湖南의 代表的 長瀑이 될것이다 그他全山의 龍湫瀑과 潭陽의 龍湫瀑所가 잇지마는 하도 張皇하니까 瀑布는 이로써 끗을마친다

學藝

우리의現實과哲學

—歷史的인이때의限界狀況—

(二) 朴 鍾 鴻

그예날希臘時代에『타레스』라고 하는哲學者가 일즉이 저天體의 觀察을하노라고 熱心으로 하날의별만처다보며 쪼처가다가 그만 물구덩이에가 빠젓드랍니다。이景狀을엽헤서보든『트라키아』出生의 어떤怜悧한젊은女人 하도 어이가업서 깔깔우서가며『원엇저자고 먼하날의일에만

■精神■이팔려서 自己 발밑에 이 땅일을 몰으는게야』하며 놀려주엇드라는말이『푸라톤』의『테아이테토스』라고하는冊속에 記錄되여잇습니다。물에빠진『타레스』라고하는哲學者가 젊은女人이 自己를嘲笑한다고해서 성을 냇는지 或은그젊은女人과더부러 한가지로웃어버렷는지는 이제알수업는일이로되 何如間 希臘時代에잇서서 오직『타레스』가 天體를觀察할때뿐만이아니오 哲學者는 모름지기 이現實이라는 땅뿌리의 땅에서생기는일은 念頭에 두지도마러야한다 現實과의接觸을 떠나야되다고 생각하얏든 것것만은 事實인듯합니다 哲學者가 되려면 爲先은女人間的 情慾을버리고 現實의實際的 關心으로부터떠나 地上의身體的 生活로부터

■自由■롭게 되여야만 한다고 하얏습니다。이때에비롯오 學問을爲한學問、理論을爲한理論、現實을 떠난哲學이 생겨낫습니다。

그러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單只알기爲하야 探究되는知識 그런知識만을 學問이라고 할수잇다고 말하얏고 이어서『哲學者는 無知를免하기爲하야 哲學을爲하는것인즉 그들은 안다는것을爲하야 理解하려는것이오 何等普通의 必要를도겨서 理解하려는것이아니라』고말하얏습니다 何等의現實的 必要도 가지지아니한知識、이것만이學問이엇스며 이것만이 哲學이엇든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떠한 切迫한現實的要求를 爲하야 學問을한것이아니오 우리가엇던 事物을對하야 다만『웨그럴까』『異狀도하다』하는 이른바驚愕으로부터

■哲學■을 始作하는것이라고 하얏습니다。그러나 이런切迫한現實的 要求를떠난驚愕、그것은驚愕이라는 이름은가젓슬망정 한갓無知나免한다면滿足되고마는驚愕、갑산驚愕이엇습니다。우리의 哲學하는 動機는 그런 種類의 知的好奇心으로부터 생겨난 양전한 驚愕이 못되고 너무나 抑壓한 이現實的苦惱로부터 莫可奈何의 情勢밋헤서 必然的으로 뻐쳐나온것이오 거기의 問題는 實踐으로서의 解決을 要求하는 그것인것이옵시다。다만 알기爲하야 알려고하는사람、그리고無知나免하면 滿足할수잇는사람 그얼마나 우리와는 處地가다른 平安한百姓이겟습니까。

그러나 世界를다만 알기나하는사람은 그의눈으로 目睹하는바 이世界는 舞臺우에展開되는演技를 오직理解하는데끄치나 우리의

■要求■는 百尺竿頭에 一步를 더나아가 이世界라는 活舞臺우에展開되는 演劇에잇서서 한모의役割이나마 가터演出하려는곳에 잇지안켓습니까。果然『스코틱』한 觀想的意味에잇서서 現實을떠난哲學은 單只 理論으로才幹을부리려는 理性技術者들의 閑暇한 작난에不過할것이올시다。그러면 웨그러한 오직 알기爲하야서의 哲學이 希臘時代에잇서서 생겨낫든가。우리는무엇보다도 그래요 實로무엇보다도 希臘時代의 社會가 奴隸制度로서 維持되든社會이엇스며『아리스토텔레스』의 所謂 單只알기爲하야 探究되는 知識뿐이 學問이라는思想은 그러한社會에잇서서 오로지그들有閑階級의現實的生活을 如實하게 表現한것이엇다는것을 우리는 分明히 記憶하야둘 必要가 잇습니다。그러기에『아리스토텔레스』는 數學的科學이 何必埃及이라는 나라에잇서서 먼저

■發達■되엇든것도 그때그곳에잇든 僧侶階級이 充分한 餘暇를가진 生活을하고 잇섯기때문이라고 까지 말하얏습니다。이와가티하야 學問을爲한學問 現實을떠난哲學은 먼저特殊한 有閑階級이라는 生活地盤에서 자라난것이오 오늘날 이切迫한限界狀況 危機에 處한 우리로서는 서뭄리본바를 수업는 思想일뿐만아니라 도로혀批判、排擊하지안흘수업는 것이며 그러한우리의것이 못되는 現實을떠난哲學은 심심푸리나免하도록 그처럼 閑暇한사람들의게로 다시돌려보내는수밧게 업습니다 우리의게잇서서는 萬一 우리의哲學이 우리의現實가온대에 깁피뿌리를 내리지못하는동안 結局彼者의自己逃避라는 譏笑에 지나지 못할것이올시다。

探報臺

그뒤의두가지潮流

우리 文壇에서는 比較的 冷淡한 態度로 지나보내인일이지마는『캅프』의 解散은 뒷날의 우리文學史上에 잇서서 매우 重大한 事實의 하나이라고 아니할수업슬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事實을 經過한 우리 文壇의 現狀은 어떠하냐하면 이 事實을 에워싸고도는 두가지의 不純한 潮流가 흐르고잇다는것을 우리는 알수가잇슬것이다。

첫재는 일직이『캅프』와 文學的主義라든지 態度를 달리하엿든 一群의 評家들이나 作家들이 오늘날의『캅프』가 저지경에 이르고 또한 그 有數하든 盟員들이 모다 못대를 꺽기워버린것을 맛치 그네들의 文學的 態度나 情熱이 다른곳에 이르러서 오늘날의 現狀을 招致한것가티 放言하는이가 잇다니 까 이것은 個人의 私行으로보아서도『幸人之不幸』이라는 惡德에 屬하는 行動인지라 다시 말할것도 업거니와 다른한개의 潮流는 當時『캅프』의 驍將들이 自由를 일허버린 틈을타서 일직이는『캅프』의 盟員도 아니든 一部 群少評論家들이 가장『캅프』나 爲하는드시 方向도모르고 左衝右突하는 現象인것이다。勿論 後者의現象은 好意로 解釋한다면 그意圖만은 前者의現象보다 嘉尙한點이 잇다고 할는지 모르겟스나 오늘날과가치 우리네의 文學이 일즉 보지못하든 混亂의渦中에 빠저잇는 處地에서 이러한 現象은 도리혀 警戒하지안흘수업는것이며 따라서『캅프』를爲하는듯한 이러한意圖는 도리혀『캅프』의 威信을 失墜식히는것밧게는 되지안흘것이다 (如水)

小品

닭을채인이야기 【三】

白 石

별일업시 닭의장안은 고요해젓다。게서 시생이는 손에쥐엇든 닭을 땅에노코 한발로 닭의목을 꺼 질어밟엇다。시생이의손이 또닭의장안으로 들어간것은 두말할것도업다。이번에는 문권으로 머리를 두고자는놈의 암가슴으로갓다。압가슴에서 목아지까지는 멀지안타。손은 목아지의 고개탁까지 아모일업시 올라갓다。그래서 시생이의손이 둘재닭의 목아지를 이번에는학 비틀어꼿는데 그리 동안이 오래걸리지는안헛다。시생이의 옷섯다。

닭의장의 좁은문으로는 컴컴한밤에 히그무레한 덩어리가하나 조심조심히 박그로 나와섯다。힌닭-살이졋든지 뭇줄한 힌닭이다。시생이의손에 집힌 그멘들미는 암닭의것이 분명하엿다。길을떠노라고 빠치는 발목재이가 꽛꽛한것이 묵은닭이기까지 하엿다。시생이는 흐뭇해서 한숨을 쉬엇다。그리면서 속으로

—이놈의 닭이색기덜 오놀은 좀 베찬살기레왓다간다 임—

하고 닭이장에눈을 힐긋 빨은것은 시생이의 기쁜노릇이엇다。하나 일이낫다。닭이장안이 이번만은 가만잇지 안헛다。맨몬저 묵은 숫닭이 궁금은 소리로 깨-득하고 소리첫다 꽈끄대 하고 나만혼 암닭이 동말엇다。꽉꽉 꽉꽉하는것은 병아리를 떨어치고자든 어미닭들의 소리 꼬대 꿀 하고 마는것은 병들은 어늬 암닭의 소리……껙껙 껙껙하고 힘개나 쓴다고 뽐내든 젊은 숫닭들이 어째울을 모르고 뒤떠든다。몬저 나만혼것들이 홰를 날엿다。누군지 한번 담대하니 홰를 친다 그리고 꾹꾸하고 -모도를 구석으로 가 박혀-라고 소리를 친다。구석에 박혀서 경우 무진 누구한아가-우리 령감대인 아닌가-하고 뭇는걸 샵한 겡가도리의 사춘이-이건 혼나갓나-하고 빽 닥질럿다。죽어도 아깜저안혼 나이라고 문가까이 목숨을 내대고 엉거주춤하고섯든 늙은 숫닭이 쭈구리고 안즈며-이놈의 령감 대이레 죽엇나?-하고 아직도 바갓세상의일을 모르고 나오지안는 디펑령감장을 두고 글탄하엿다。어니 옮기잘하는 암것이 새삼스런게 -에구이겁어디카노-하며 꾹꾹 꾹끄대하고 울엇다。그러자 모두들 껙껙 꾸룩룩、꾹꾹

憧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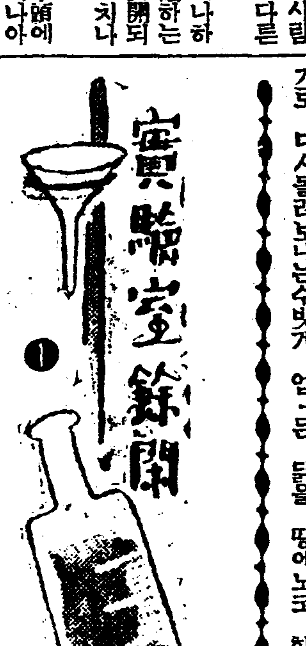
朴 宗 軾

어리섬風이 南國의 處女林을
버서난 正午에
나의 憧憬은 젊은 湖畔에 안저
고요히 휘人바람을 불고잇다。

軟弱한 孤獨이 포도알처럼짓터진 黃昏에
나의 憧憬은 멜랑코리한 森林의 속으로
담배하나도 피우지안코 묵묵히 거닐고잇다。

붉은幸福이 琥珀알처럼 치운 아츰에
나의 憧憬은 가슴을 활작헤치고
갈人대숨혹어진 平原을거치달리고잇다。

實驗室餘聞 ①



象牙塔의興味

世專病理學敎室 尹 日 善

實驗室 或은 硏究室은 大小를勿論하고 그設備의 多寡는무를것업시 一個의 象牙塔이니그 안에서 하는것과 하는言辭가世上에는 興味가업고 通用되지못할지모르나 그안에는 希和裝置가업서도 實驗中에는 더위도모르고 그結果를 追求하고잇스니 어려석게보일지 알수업스나바게

■建築■ 工事하는 사람이나 或은 軌道工事를하는사람이 自己가 工築하는 建物 或은軌道의完成을 보아가면서 그均整美를 늣기는것과가티 우리는 生物의 諸現象을 實驗하면서 그안에 統一된 原理를 發見할때 우에말한것以上의痛快를 늣기게되는것이다 이러한勝惡으로

只今까지 만흔사람이 一生을望遠鏡에託하야 하늘을처다보고지내다죽엇슬것이요 一生을顯微鏡만처다보고잇섯든사람도 잇섯스며 或은 一個의硝子試驗管만 드려다보다 이世上을 지나간사람도잇슬것이다 우습다면 우습지만 그體驗을하기前 或은 그사람이서기前에는한말로우서버릴것은 못된다 그

■世界■에는空間과時間을 떠난無我의境地가 잇기때문이다

科學도 (矛盾인지는모르나)한개의 信仰이업스면 못할것이다 自己의想定한바 그대로進行하자면相當히堅固한信仰이必要하다 그러키때문에 從來 科學者가운대는 眞正한 意味에 잇서서의 宗敎的信仰에 歸依한 사람이 만흔것을보다 또한 象牙塔안의 狂熱이라도 이世上에有用한때 … 잇다 그것은 …

象牙塔入口에 揭示한 엇던것인 지나는 사람으로 探擇되여 街頭에進出한때나 醫學에잇서서는 人體에關한 特히疾病에對한것이라볼수잇겟다 그러한것도

■世上■에서는 價格低廉、材料豊富、使用方法簡便 應用範圍廣大한것을가지고 간다 그러나 象牙塔안에서는理論整通한것 純粹한것으로 效果的確한것 究極의目的으로하야 高價의것 稀少한것도 보는때가 잇다 그例를近來의 우리醫學에잇서도 나의興味를끌며 痛快한것의하나를紹介할까한다 卽 從來부터 알든『비타민』C에 關한것이다 이것은 이『비타민』C가 食物에包含되여잇지 안흐면『비타민』C 缺乏症이라고 하야 벌서 그것에서 出血이되는 壞血病에걸린다

■果實■ 그것은『비타민』C를가진 果實을 먹이면 治癒되는것이나 그러나 最近에와서는 그『비타민』C가 化學的으로『아스콜빈』酸이라는 酸인줄알게되고 그酸을人工的으로 化學的으로 合成하야 純粹한化學物質로 作成한結晶까지 엇게되엿다 이것은 果實을가리지 經口的으로 먹기만할게아니라 簡單히注射할수도잇고 治癒되기까지의時間도 極히短時日이면 되는것이다 勿論아직까지 廣汎히 應用되지는안햇는지모르나 이런것은 餘談이지만 모르는 詳細히 모르든『비타민』이 究極의 化學的 人工完成까지되엿것까지 알게되엿다。또한 그『아스콜빈』酸이 體內特히腎臟우에잇는 副腎의皮質의 特殊한 細胞中에 豐富히잇다는 것은 痛快한일이라고 생각한다。이런것을 볼때 興味는 陣陣하여 象牙塔의 實驗室을 우서 버릴것은 아니라한다 (끗)

海外片信

前伊國首相의令愛 『올란드』孃『팟쇼』로轉向

—뭇솔리니支持의紅焰萬丈—

【『팟쇼버-그』(오하이오州)發聯合郵信】『카르라、올란드』라면 世界大戰當時의 伊太利首相으로서 有名하든『빗트리오、올란드』의愛孃인데 厥女는『뭇솔리니』가 首相의 印綬를 차게 되자 『팟쇼』에 反對하여 公職을 退하고 以來 亞米利加에 亡命해서잇섯스나 最近心境의 變化가 잇서서 아주『팟쇼』로 轉向하고 『뭇솔리니』首相의 政策을 全的으로 支持하겟다는 뜻을 發明하엿다。厥女는 近者에『팟쇼』 贊美의 講演을하고 最近 米國新聞이『뭇솔리니』首相의 對『에디오피아』政策을 攻擊한것에對해 普及하고 다음과가티말하엿다

『나는亞米利加新聞이 엇재서伊太利政府의 行動을 論難하는가 甚히 諒解하기어렵다 特히近者『뭇솔리니』首相의『에디오피아』討征을하기위해서 軍隊를 增募하고잇스나 內容은 遠征希望者가 적어서 困難하다는 報道를실은 新聞이잇스나 이러한 記事를 엇지서 公然하게 揭載하는가 나는 그理由를 알수가업다 全伊太利는 一人의 例外도 업시『뭇솔리니』首相을 支持하고잇다 今番의對『에디오피아』遠征도 伊太利人은 決코 侵略戰爭이라고 생각지안코 亞弗利加에잇는 伊太利國境을 擁護하기위한 自衛的戰爭이라고생각하는것이다』

法王廳의珍時計

【바-티칸市發聯合郵信】最近羅馬法王에게 매우珍奇한 時計가 獻上되엿다고한다。製作者는 『오-스트리아、윈』의『호델』이라고하는 女子時計師。時計는 『피-드』로서 電氣照明裝置의 地球圖가 備置되여잇고 世界各國의 主要한民衆의 祭典이 一目瞭然하게알게되여잇서서 法王은 贈物에對하야자못 滿悅하고잇다한다。

食人種의動物園行

【바-젤發聯合郵信】白耳義의 바-젤市에서는 近者市民博覽會에 出品하기 위해서 亞弗利加白耳義領의 獰猛凶惡한 食人種 六十五名을 招聘해왓스나 彼等을『호델』에宿泊식혀다가는 엇더한 일을저질지 危險하기짝이 업슴으로 市當局은 여러가지로 考慮한 結果同市의 動物園의 檻中에 收容하기로하엿다고한다 人間으로서 動物園에드러간것은 이것이 最初이라고해서 目下大評判이라고한다

新刊紹介

▲宗敎時報 八月號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朝鮮耶蘇敎長老會總會宗敎敎育部發行 定價五錢

▲藥井餘談 八月號 東京市… 一丁目三 …

夏期規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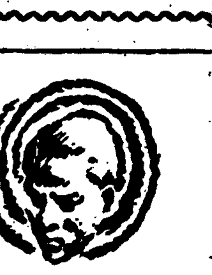
歸鄕文藝 投稿歡迎

1、隨筆、日記、紀行、實話
2、專門學校學生程度以上
3、四百字原稿紙十枚以內
4、寫眞添付도無妨
(但原稿返還은不能함)

朝鮮日報社學藝部

黑風 【103】

韓 龍 雲 作　金 熊 超 畫



정탐(偵探) 13

왕한은 기회만 잇스면 동지들을 차저다니며 마음을 의론하고 일을 말하기를 조아하얏다 하로는 왕한이가 성원을 차저가서 정답도하고 일도 의론하랴 하얏스나 성원은 왕한을 보자마자 모든것이 냉담하고 친절치 아니할뿐아니라 도로혀 서어한편이 만하야서 왕한에게 적지아니한 의심을 주엇다 그것은 성원이가 순옥에게 드른바에 의하야 왕한이를 불쾌하게 아는 까닭이엇다 그러나 그러한 리유를 조금도 알지못하는 왕한은 성원에게 대하야 의심스럽고 미안할뿐으로 그리유를 무러보기도 어려웁고 그대로 잇서서 당회를 계속할수도 업스므로 성원을 어름어름 작별하고 도라

기둥이 긴장하야서 여러사람새이에 숨어잇는 도적을 눈치로 잡으라는 정탐 가튼 왕한은 순옥의 잇는집 현관에 드려서자 돌연히 안으로 나오는 순옥을 맛낫다 순옥은 바른손에 손가방을 들고 외인손에 편지를 드럿는대 그편지를 손가방에 너으라고 하는 바로 그순간이엇다 왕한의 눈은 번개보다도 빠르게 순옥의 가진 편지 봉투에 청국북경 경찰청장소옥 각하(滿洲北京警察廳長蘇玉閣下)라는것이 씨어잇는것을 보앗다 그것을 본 왕한은 어두운밤에 산골길을 가다가 귀신의불(?)을 맛난것처럼 안길이 환히 뵈이면서 소름이끼칠만치 무서웟다 그러나 왕한은 못본체하고 기운을 펴서 조금도 이상스런 기색을 뵈이지 아니하얏다 편지를 들고 무심히 나오다

온은 집에 (…) 가기로하얏다

왕한과 성원은 동지 중에도 특별한 정분이므로 서로 찻는때에는 형식상의 교제로만 친절할뿐 아니라 뜻과 기운이 서로 합하고 정과 의가 서로 통하야 두사람의 새이는 조금도 막힘것이 업슬만지 가까웟든것이다 그러한대 왕한은 뜻밧게 성원의 그러한 태도를 보고 놀나지 아니할수가 업섯다 그리하야 혹은 성원이가 마침 심기가 불평한 일이 잇서서 그리하얏는가 하는 생각도 하야보앗스나 그것도 리유가 박약(薄弱)하얏고 그외에 최근에 잇서서 성원이와 관계될만한일이라는것은 순옥이를 소개한 일밧게 업는대 그일에 대하야는 조금도 무슨 감정날만한 일이 업섯다 그러나 왕한은 순옥을 소개한일을 생각하다가 무슨리유를 드러서 그러타고 할수는 업스나 다만 심령(心靈)의 감각(感覺)으로 순옥의 언어행동이 이상하니만지 의문의 열쇠는 순옥의 손에 잇지아니한가 하고 생각하게 되야서 순옥을 맛나면 아모조록 그러한점을 차저보랴고 생각하얏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순옥을 차저가는 왕한은 순옥의 잇는 집압헤 이르자 그집의 문틈과 벽틈새이에서 부러 순옥에게 의심나는 점을 차저볼 마음의 …

가몸난결이 … 은 고양이를 맛난 쥐처럼 가지러지게 놀내어서 얼골빛이 새파라케 질니면서 입을 버린채로 무어이라고 말을 이루지 못한다

『아! 실례하얏습니다 문밧게서 찻지도안코 드러왓습니다 돌연히 마주쳐서 놀내셧겟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는 왕한은 짐짓 다른대를 보면서 순옥의 수습하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빠르게흐르는 시선으로 순옥의손에잇는 편지만은 다시 보앗다

순옥은 영리하니만지 빠르게 기색을 안정하면서

『애구 선생님이서요 정신을 노코 나오다가 조금 놀낫습니다 아마 선생님도 놀나섯지요』

하는 순옥은 거짓웃음을 우섯스나 놀난빛이 사라지지 아니한 그의 얼골에 억지의 우슴을 웃는것은 맛치 주름살 접힌 검은 얼골에 고르지 못하게 분칠한것처럼 더욱히 어울리지 아니하얏다

그리하는 동안에 편지는 가방속으로 드러갓다

『어대를 가시는 길이야요』

『급한 편지가 잇서서 부치러 가는 길입니다』

순옥의 안 마음으로는 편지 부치러 가는 말을 아니하라고 하얏지마는 너무도 당황하야서 엉겁결에 바른대로 말을 하게 되고 말엇다

KA-58

今月은 胃腸의危險期

복통설사에

糖衣 아도-스錠

夏節은 腹痛泄瀉가 가장危險합니다 설사、腹痛에는 勿論 虎列剌、腸窒扶斯、痢疾、疫痢等의 豫防에 이잇스면 못아도-스를服用하시오

아도-스錠은非常히强한吸着作用을가진活性의植物炭素로서 此를服用하면腸內의病菌과毒素、粘液有害等을獨特한吸着作用으로不溶解하야 조곰도腸을損치안코 排泄케합니다 … 말장이나게합니다 무엇보다는全國各大學病院이며傳染病院에採用되야『痢疾虎列剌疫痢等』에 … 家의實驗報告가雲集되여잇슴니다 이러한때에는胃腸과體力이弱하여진때이므로一日이라도 두는것은危險하오니速히아도-스를服用케하십시오

炭素吸着療法

吸着療法이란것은腹痛泄瀉에對하야普通使用하는下劑療法과가티單只腸管內容物을排泄하는것뿐만아니고藥物의吸着作用을應用하야腸管內에停滯하야中毒素或은病原菌等을特히吸着脫取하고更히胃腸壁粘膜의損傷部又는潰瘍面까지도硬覆하야腹痛을鎭靜케하고便通을整히하는바所謂學理와臨床과를合致케한合理的療法입니다

따라서一般腹痛泄瀉에對하야도-스의療法은身體에倦怠疲勞等의副作用을惹起케하지안코奏效하고治療의目的을圓滿히達할수잇는理想的療法입니다

◇適應症◇ 一般下痢、鼓腸、醱酵性下痢、急慢性腸加答兒、胃酸過多症、慢性便秘、疫痢、赤痢、虎列剌、腸窒扶斯、食餌中毒、果物中毒等

糖衣錠(白錠)
一五錠入 二十錢　五〇錠入 五十錢
二〇錠入 一圓　五〇〇錠入 三圓五十錢
錠劑(黑錠)
一〇〇錠入 六十錢　五〇〇錠入 二圓

京城府西小門町
株式會社 藤澤友吉京城支店
本店 大阪道修町

糖衣 아도-스錠

浸水家屋十四萬戶 死傷者四百九十餘
在留同胞被害도 多大한 모양
奉天省管下의 水害狀況

【奉天】금번 수재(水災)로 전만주에 궁하야 다수한 손해를 보게되바 봉천성관하의 피해정황은 심양(瀋陽) 료양(遼陽) 해성(海城) 본계호(本溪湖) 무순(撫順) 철령(鐵嶺) 영구(營口) 신민(新民) 흥경(興京) 청원(淸原) 류하(柳河) 금천(金川) 휘남(輝南) 몽강(濛江) 등 십오현(十五縣)이 심한 상태엿다는데 이등지는 전부 조선 동포들의 다수 거주하는곳으로 동포들의 피해상태는 상세히 알수업스나 물론 다수히 피해를 당한 모양이라하며 선만이의 총피해상황은 아래와 갓다한다

▲浸水家屋 一三九、五〇〇戶
▲罹災人口 八九六、〇〇〇人
▲流失家屋 一〇、九九九間房
▲浸水耕地面積 三〇四、七〇〇畝
▲死傷人口 四九七人

君德橋下에서 疑問屍體發見

【牙山】충남 아산군 선장면군덕리(牙山郡仙掌面君德里)부근에 잇는 군덕교 밋헤는 십여세되여보이는 어린 아이의 시체를 지난 십일일에 온양경찰서원이 발견하고 즉시로 검시 의료시체를 해부한 결과 타살혐의가 농후함에 당서에서는 시체의 임자를 찾는 일방 맹렬히 범인수사에 활동중이라한다

城津留學生親睦會

【城津】지난십일일 오후한시부터 성진향양청에서 제십이회성진유학생친목회가 회원십여명의 출석하에 의장류희춘(柳熺春)씨의 개회사로 열리엿다는데 금번도 시사업으로는 놀구대회를개최하기로가결하고 다과회가 잇슨후 회기에예한중역 동다섯시경에 폐회하엿다는데 신임위원은 다음과갓다고한다

柳熺春 金性洙 柳雨泳 吳光□ 吳昌憲 韓玉今

釜山地方染病統計

【釜山】지난칠월중의 부산부내 전염병환자는 적리(赤痢)사십일 장질부사(腸窒扶斯)십륙 성홍열(猩紅熱)일 합계륙십명으로 금년정월부터 칠월말까지의 루계는 적리칠십일 장질부사 팔십구 두창(痘瘡)일 합계 이백사십명에 달한다고 하며 칠월중 도내 전체의 루계는 적리 팔십륙 장질부사 사십오 성홍열 삼 두창 일 합계 일백삼십팔명이고 금년정월부터 칠월말까지의 루계는 적리 일백삼십삼 장질부사 일백칠십이 빠라디푸수 오 두창 일 성홍열 삼십팔 디푸데리아 팔십사 합계 사백륙십이명에 달한다고한다

旱害地咸平郡民 救濟策講究促進
原因防止、工事實施等等陳情
—各界有志의努力—

【咸平】전남함평군 일대는 대한발로 농작물의피해가 이백만여원이라함은 긔보한바 어니와 속수무책한 소작농민은 호구지책이업시 극도의 공포에 싸여 그날그날을 지나가는 그들의장래구제는 고사하고 당장구호(救護)할 방침은 위선 토목공사를 착수하여 하로밧비 먹을것업시 방황하는 그들을구제함에는 최저오십만원이 피료하다는데 한재민(旱災民)들의 당국에 대한 호소는날로 놉하가는바 지방유지들은 지나간칠일에 함평면에서 한재구제책을 협의하고 군내유지 수삼인이 지난십이일에 도당국에 진정차 상도하얏다한다

이번한재는 하천(河川)의 관계가 큰원인이되다고하야 이하천을 이러한시긔에 구제사업을 겸하야 하천의 정리공사를 착수하여달라고 당국에 진정서를 발송하얏다는데 군당국은 아래와가티 방문한긔자에게 말한다

南郡守談 이재 여러가지 구제사업을 생각하고잇는 공사중 재원(財源)관계가 엇지 될는지 가급적이면 속진되도록 노력은 하겟습니다마는 공사비가 륙십만원 가량이나 드러야될 것인바 그공사를 착수하여준다면 이야 그하천 몽리구역(蒙利區域)의 한재민들에게는 큰도움이 될것입니다 운운

大邱府債低利借換

【大邱】대구부의 사업설비비로서 긔채한 금액이 칠십삼만자백칠십이원에 달한바 금번에 신설한 종합운동장과 서부출룡의 설비에 관한 긔채까지 합하면 약백만원에 달한다는데 차입한 회사에 따라 리자 최저가 삼부오리로부터 사부팔리 혹은 오부이리 또는 최고가 륙부팔리 고리채인고로 대구부에서는 공채를 발행하야 전긔 각종의 긔채를 전부 반환하야 저리에 데 저리채로 차환하기로 결정하엿다는데 리익이 오만원 내지 륙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靈光의 旱害對策 當局에 陳情準備

【靈光】본지방에 미증유의대한발로 인하야 그피해가 참혹하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그호한 발은 더욱 계속하야 미앙답삼천여정보에 그피해액 삼백만원이상을 내엿고 이미 심은것도 다타버려서 수확의 희망이 조금도업고 본군의 곡간인 수리조합구역이천팔백정보도 전부귀렬(龜裂)되엿는데 때인즉 벼이삭이 생길때라 압흐로 수일만이상태로간다면 그역시 전멸이라고한다 이에 대하야 령광번영회(繁榮會)에서는 지난 십일 긴급회의를열고 한해대책을 강구한바 한편으로는 군당국을 독려하며 한편으로는 도에 진청을 하는것이 올탸하야 진정위원을 선정하야 일간 도청에파견할터이라고한다

朴鍾國氏美擧

【盈德】경북영덕군읍내(盈德郡邑內)사립영덕유치원(私立盈德幼稚園)은 십여년의 역사를 가진 유치원으로 내부설비에도 완비치못한점이 만커니와 더욱이 보육시간마다 필요한 풍금(風琴)이 완전치못하야 당국자들은 유감으로 여기든바 동군영덕면창포동(盈德面蒼浦洞) 박종국(朴鍾國)씨가 산엽제륙호(山葉製六號) 풍금일좌를 긔증하여 원당국자는물론이오 일반학부형까지 깃부게하고잇다한다 씨는보통학교에 에악기 일좌에일백오십원과 창포간이학교에 설립부담금과 기다지방발전사업에도 만흔찬조가 잇섯다고한다

七萬餘圓經費로 避難所設置計畫
新義州府에서立案中

【新義州】마전동(麻田洞)민포동(敏浦洞)일대의 피난민이 신의주 남쪽제방전부에 웅거하고 언제 옮기게될는지도 알수가 업다함은 신의주의 생명선인 제방을 보전함에 중대한문제다하야 신의주부에서는 크게골머리를 알코잇는중 금번신의주부내에 상설로 피난소를 설치하자는계획을 세워, 지난십이일, 평북도청에 원서를 제출하얏다는 피난소는 당장제방우에잇는 피난민을 수용함에 절대필요할뿐안이라 마전동일대의 홍수는매년 년중행사로 업는해가 업슬형편이며 또압호로 벌채가 왕성함을따라 홍수의 위험은 더욱 심각케될것임으로 저습지에 주거를 금지치 안는이상 피난소의 설비는 긴급하고도 업지 못할일이라하는것인데 그계획의 내용현재 신의주고등보통학교 뒤 공터에 한채(棟)의 건평사십평식으로하야 팔십일동을 세우고 부속건물로 변소 이십 이피난소는 척판하로 지붕을 하고 사방에는『산』를 치게할터인바 한채에 건설비용이팔백칠십원 변소한곳에 이십원식하야 비용추게는 칠만일천삼십원인바 이비용은 전부국고보조로써건설하자는것이라한다

市民慰安音樂 空前盛況을일위

【惠山】본보혜산지국에서는 고려병원(高麗病院)후원아래에서 양음악과조선음악을 연구하는 리화녀자학교 교수로잇는 황재경(黃材景)씨가 래혜함을 긔회하야 지난십일오후팔시반부터 명치회관에서 음악회를 개최한바 륙백여명의청중가운대 수십종목의동서음악으로 자못성황을 이루고 동오후십일시에 무사히종료하얏다한다

各界商人이 結束 使用料減下陳情
兼二浦市場規則改正問題

【兼二浦】긔보=지난팔월일일부터 개정실시한 겸이포읍 당국의 겸이포시장 사용규측개정으로 사용료문제에관하야 일반상민간에 물의되얏든 불평과원성은 드듸여 폭발되여 지난십삼일정긔 시일(定期市日)에는 도긔상(陶器商)을 비롯하야 초물(草物)고무신、잡화상(雜貨商)등이십오명이 오후 다섯시경에 읍장을 차저진정하엿스나 읍장은맘서 퇴청후로서 남아잇든 계원(係員)과 요령부득한 면마디를교환한후 아모소득업시 도라가고마럿는데 이들은 다시 날을기다려 적당한 방법으로 재차진정할것으로 취측된다는바 일반상민간에는 금번개정한 전긔시장사용규측에 대하야 그사용료무리인상、부당한 징수에대하야 여론은점차비등 하여가고 잇다한다

兼二浦明治町에서 二棟三戶全半燒
總損害額이 六千餘圓

【兼二浦】지난십삼일 오후구시반경 황해도겸이포읍 명치정번영가 안등(安藤)모의집에서 돌연발화하야 불길은 삽시간에 이웃인 두광무력상점(斗光武力商店)에 연소하고 다시이웃집에연소되여 안등의집은 전소되고 두광상점의한집은 반소되여 결국이동삼호를 전반소한후 십일시경에 겨우진화되엿다는데 발화원인은 실화인듯하다하며 총손해액은 약륙천원에달하리라한다

酒稅令違反件數 勿驚! 一千餘件
釜山稅署管內昨年度統計로
罰科金이 一萬餘圓

【釜山】소화구년오월 부터 동십년사월 까지의 부산세무서(釜山稅務署)관내 주세령(酒稅令)위반건수는 주류륙백팔십륙 곡자삼백륙십팔 기타 이십칠 합계 일천팔십일건 으로 이에 대한 벌과금(罰科金)은 일만사천오백삼십오원의 거액에 달한다 그리고 전년동긔에 비하면 주류는 삼백사십사건 곡자 삼백륙십건 합계 칠백사십건이 증가하얏고 벌과금도 약팔천오백여원이 증가하얏다 한다

末伏날溺死二件

【群仙】금년의 더위도 바야흐로『크라이막쓰』에 니른 지난 팔십이일 말복(末伏)날 더위를피하야 몰을 차저갓다가 앗가운 생명을 때앗긴 남양개의 기화두건。

함남리원군선(咸南利原群仙)에 거주하는 김창언(金昌彦)(一三)씨는 그날 말복노리로 수상친구와 함께 방진해변(方津海邊)으로 낙수人대를 가지고 놀너갓든바 바위우에서 고기를 낙다가 그만 실족하야 바다人속으로빠젓슴으로 동행들은 크게 소동하야 구조작업을 하는일방、어선의 구조를 청하야 겨우건지엇스나 원체 모다 헤엄칠줄몰을뿐아니라 파도까지 심하야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니엿슴으로 맛츰내 절명되엿고 동일 동면 룡산리(東面龍山里)조모(趙某)의 아들 세살난 어린아이도 개울에서 우모들과갓치 목욕하다가 잘못하야 빠저 죽어다고한다

그女子의一生 (183)
방랑편 春園 作 夕影 畫

「무업 그려우?」하고 금봉은 수건으로 숙희의 눈물을 씻겨주며,

「이왕 그러케 되것을 생각하면 무엇해? 새로 살아나갈 길을 생각하서야지. 자꾸 그런 생각만 하시면 병이 낫수?」

하고 춤은한 빗츨 보히면, 숙희는 더욱 반가운듯이 금봉의 손을 만지면서,

「새로 살아나갈 길? 내게는 인제는 새로 세로 살아나갈 길이 업서요. 나는 이대로 얼마 동안 더 벌을 밧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밧게 업서요.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지도 안코 설사 살아나기로니 이 쓰라린 긔억을 품고 어떠케 살어? 자 보아요. 지금도 이러케 눈 압헤 그 피덩어리 모양이 어른거리는걸. 한번 울어도 못보고 엄마라고 불러도 못보고 피떡피떡 하다가 죽어버린 그 모양이. 아이 무서워 아이 무서워!」하고 두 손으로 제 낫흘 가리워버린다.

「정신에 이상이 생겻나?」하고 금봉에 몸에 소름이 끼침을 깨달앗다.

「언니 세상에는 그런 일을 하고도 사는 사람이 만흔데」라고 숙희의 마음을좀 안정시켜보랴고 말을 생각하여가며,

「그게 죄라 하더라도말야 우리네 연약한 사람이 할길이야 뉘우치는것 밧에 더 잇소? 죄를 짓고는 뉘우치고 짓고는 뉘우치고 한는것이 우리인생이아니요? 그밧에 무슨 길이 잇나? 엇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듸 잇소? 짓고는 뉘우치면 고만이지. 다시는 아니 그러겟다 하고 맹세하고 힘써가며 살수밧에 어떠커오? 언니가 그것이 큰 죄로 아시거든 얼른 건강을 회복하서서 그죄를 속할만한 조흔 일을 하시구려 이러케 밤낫울고만 잇스면 무슨 소용이 잇서? 자 언니 그만 울어요. 언니나 내나 다 가티 불행한 죄인들이니. 우리 이 압호로는 서로 붓들고 서로도아서 새로운 길을걸어보아요 응 언니 그래요 첨괴롭거든 긔도를 하시구려 하나님께 긔도를 올리시구려 진정으로 뉘우치는 긔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진겨

때에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나며 문이 열렷다. 그것은 한재엿다.

한재는 금봉을 보고 잠깐주춤하엿다. 금봉은 낫을 붉히며 자리에 일어낫다. 금봉은 가슴이 설레어서 인사할 경황도업슬 때에 한재가 먼저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엿다. 금봉은 마치 사변첫 처녀시대에돌아간것가티 수집어젓다. 한재는 코밋에 조끔 수염을 붓여엿다.

한재는 삼주일 동안이나 삼남지방으로 순회하다가 오늘 아츰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누이를 찾은것이엇다. 숙희는 두손으로 낫을 싸고,

「옵바, 오시지마서요. 뵈올 면목이 업어요」하고 울엇다.

「그런 소리 맘어.」하고 한재는 힘잇게 숙희를 책망하고, 머리를 만저보면서,

「아직 신열이 잇고나」하고 동생의 눈을 들여다보앗다.

「옵바, 면목이 업어요」하고 숙희는 입설을 문다.

「그런 생각 말어. 연약한 사람에게 허하여진 힘은 회개다 면목이 업거든 압으로 고칠 생각이나하고 쓸데업시 괴로워말어. 괴로움은 마귀의 일이다. 회개와 긔도로 하나님께 새 은혜를 구하여라」하고 금봉을 돌아보앗다.

하시는 향긔로운 제물이라고 안그래서? 앗어요, 그러케 마음을 괴롭게 하지말어요. 응언니」하고 다직을 밧으라는드시 그 손을 잡아흔드다. 핏긔업시 싹늘한 그손 끗은 마치 죽은 사람의손을 만지는것갓햇다.

「고마워, 금봉이, 고마워, 금봉이 말은 금봉이 손과 가티 그러케 따뜻하고 부드러워. 나가튼것은이런 고생을 해서 싹지 마는 금봉이가티 이러케보드랍고 향긔로운 영혼이 어찌해서 그 소생을 할까」하고 숙희는 금봉의 말에얼마끔 안위를 밧는드시 금봉에게 동정하는 뜻을 표한다. 사실상 금봉의 말에는 숙희의아픈 혼을 유하게 하는 힘이잇섯다. 마치 불에 데어서 조이는 살에 기름을 바르는듯하엿다

금봉이가 바로 숙희의 방에서 나가라고 숙희의손을 잡을

皮膚病良藥 데-무水

皮膚病에는 단하나뿐인 テーム水

從來의皮膚病藥은 化粧水와大同小異하야 效力이薄하며 使用함에 不便한곳이거리는 齊藥用도잇고또쓰리기만하야 效果가잇는듯하나疑心스러운것이만엇스니、既往의皮膚藥의 不備한점과 缺陷을補充한것이皮膚病良藥テーム水올시다 テーム水가左記皮膚諸症에對하야 適藥인것은 이미世上의定評잇소 때는正히 皮膚病跳梁期、이九苦한때皮膚病良藥 テーム水의 常用을 推獎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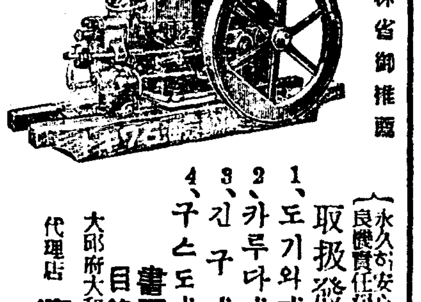
●말르음 ●음부습진 ●무좀 ●옴 ●태독 ●부스럼 ●진물르데 ●가려운데 ●부름 ●힌어르럽 이●버짐 ●癩風 ●腫物 ●피풍 ●며드름 ●죽은깨 ●농가증 ●脫肛門 ●진물은데 ●옷올닌데 ●粟粒더단데 ●버륵 ●모기、갈다귀、빈대等蟲의刺傷皮膚에 使用하고 쓰리지안코 압푸지안코 눈에안뜨고 냄새업시用法이 簡單하며 潔히낫소

テーム水藥價(廿錢、卅錢、五十錢、一圓、二圓、……送料內地六錢)

全國到處藥店에잇슴

模造品이만소 必히テーム水라指名하시고사시십시요

發動機界最高權威



農林省御推薦

〔永久히安心的保用機 良機責任的對保證〕

取扱發動機種類
1、도기와式 2、카루다式 3、진구式 4、구스도式 5、마스다式 6、야시마式 7、其他各種類

書面照會卽時目錄無料贈呈

大邱府大和町 代理店 濱田農機店 (電話七四六番)

頭腦의疲勞恢復藥

ノーシン

飛躍의힘

朝陽을바드면서 爽快한머리로 하로의스타-트를始作하는光輝잇는힘이여! 아츰에一服한 ノーシン의效力!

一主効一 頭痛 頭重 頭腦過勞 頭腦朦朧 精神憂鬱 宿醉

藥價 三十錢 五十錢 一圓 ▼藥店에잇슴▲

發賣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銘酒 誠鶴

炎熱에지친몸도 誠鶴一杯에 元氣가다시萬丈!

仁川 深見釀造場

銀粒仁丹

써늘하고 爽快한 凉味 仁丹으로 더름타지안는분은 健康에幸福이旭天

おとめケース ローズ仁丹 美麗한이케ー스進呈中 只今로ーズ十錢包에特히贈呈

效能で賣れる 七ふく 시찌후꾸 ひえぐすり 히에구스리

效能 上氣를引下하고便通을良케함 梅毒淋疾諸症을除함 효능으로 팔이는며

藥價 半週分廿五錢 一週分五十錢 ▲送料十錢 三週分一圓卅錢 五週分二圓 海外四十錢

大阪高津表門筋 本家七ふくや伊藤長兵衛

振替大阪九七三 電南七二九

浪花館 洋畫專門

八月十二日より五日間 大衆料金三十錢均一

十三、十四日 ▲トンネル ▲商船テナシチ ▲戀の一夜 ▲ますらを

十五、十六日 コロムビア超特作日本版

謹告! 本館內部修繕키爲하야八月十四、十五、十六、三日間休館하나이다 八月十七日부터特別名畫大公開! 晝夜三回興行! 거리의등불 「찰스뜨닌」氏原作自作自演

優美館 電光三九五

八月十五日낫부터二回映畫 木曾路 日守新一 忍節子 助演 葛木香一 市川右太衛門 主演 ○松竹蒲田超特作 新進深田修造 監督 港祭 飯田蝶子 德大寺伸 久原良子 共演 蒲田女優軍五百名總出演

春よお前は罪つくり 星ひかる 若島喜代子 助演

女難江戶染の紋 大伴龍三監督作品 阿部九州男 主演 木下雙葉 東龍三 助演 大都映畫社特作現代劇 石橋靖兒 監督

朝鮮劇場 仁寺洞 電光三六一

◇十五日밤부터 (夜間演劇) 新舞臺夏期公演 革新新舞臺의威容果然劇界空前의大記錄突破 (當當第二週)

◇申鄕中作 時代劇 吸血女 ◇林仙圭作 支那劇 두지칭히는黃河

朝鮮映畫銀河에흐르는情熱 明雨出演 李源鎔 李慶善 沈影 朴齊行 申一仙 柳新芳

出演=卞基鍾、李啓煥、沈影、宋海天、朴伽松、河之瀞、羅品、朴齊行、朴銀波、申一仙、卜元圭、金道日、金愛順共外全員出演

近年世界金移動 ①

通貨安定이 緊要

一九三○年을 轉機로하야 通貨安定問題의 形相은 一百八十度로 轉換되엿다 그때까지는 世界大戰以來 發行되엿든 不換紙幣를 廢止하고 通貨를 安定케하는것이 國際的 最高定義이엿다 主要國의 銀行、國際聯盟의 金融專門家會議、또는 各國政府自身도 相爭하면서 金本位復歸에 努力하엿다 金本位復歸는 國際經濟政策上 가장 緊急한일로 생각하엿다 그러나 現在에 이르러서는 이가든 情勢는 全然一變되고마럿다 當時가장 熱心으로 金本位復歸를 主張하고잇든 諸國이 現在에는 그와 反對로 金本位復歸의 效果를 疑問視하며 躊躇하고잇다 이가든 國家에서도 結局에잇서는 金本位로 復元할 必要가 잇다는것에 對하야는 反對치안흐나 될수잇는데까지는 金本位復歸를 멀니하기爲하야 여러가지理由를 說明하고잇다

×

이처럼 情勢가 一變된 理由를 理解하기는 容易한일이다 多數의 國家는 金本位復歸를 念하면서 오히려 不合理한 通貨安定點을 求하고잇섯다 大部分의 國家는 戰爭中乃至戰後 인플레이손後 新平價로 도다가려고하는데 어떠한 困難이 横在되여잇다는것도 알지못하고 잇되히 最高安定點을 求하엿스나 이것은 畢竟 大戰前의 契約을 忠實히 履行하려는 善良한 各國에서 나오는것이지만 世界大戰의 結果 貨幣制度의 混亂은 獨히 國際關係에 限하지안코 全世界에 亘하야 여러가지 支障의 手段으로 말미아마 障手段의 累積에 依하야 作定된 商物價水準을 維持하기는 到底히 되지못하엿다 結局 國際淸算의 停滯로 物價는 一九一三年의 水準以下로 低落되고 그結果는 十九世紀를 通하야 第一低位로 되엿든 一八九五年의 水準以下로 低落되엿슴을 不拘하고 各國은 以前보담은 오히려 金本位復歸를 躊躇하엿다。

×

그러나 이가든 境遇에 金本位復歸를 躊躇하는것은 舊平價로 金本位에 復歸하려고하는 十年前의 幻想에 不過하다 이問題에 對하야 理解잇는 公平한 사람들은 過去十年의 經驗으로 하여금 各國의 通貨를 如何히하야 安定식힐수 잇는가를 充分히 認識하게될 것이다。 現在와가튼 不安定이 繼續되는限 外國貿易은 擴張치 안흘수 업고 이不安定한 狀態는 國際的協調 乃至는 協力에 不可缺할 國家間의 均衡狀態에서 漸次 멀어저가고잇다 特히 注意할것은 最終에 來한 影響이다 웨 그러냐고하면 金本位復歸에 對한 一般의 躊躇한 反對가 現在의 情勢에 잇서서 가장 危險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通貨不安定이 惹起하는 第一의 結果는 金의 移動이 가진 二重의 意味를 從來와 다르게하는것이다 모든 通貨가 金을 基礎로하는 國際的通貨制度下에서는 一國으로부터 他國에의 黃金의 移動은 二、三의 原因에 依하야 이러남에 不過하다 國際間의 金의 移動은 貿易上에 一時的 不均衡이 생긴境遇에 이러나고 이境遇에는 그移動하는 期間은 쩔다 移動期間이 오래繼續하는 境遇는 兩國의 物價水準이 相違함에 依하는 것이다 이 相違는 金輸出國側에 不可避的으로 이러나는 信用의 收縮과 이에 隨伴하야 生기는 金輸入國의 信用膨張과의 兩作用으로 消滅한다 이러케 現在와가티 金產額이 急激히 增加하고잇는 時期에는 數個國이 同時에 金을 輸入함도 正常한 經濟狀態이다 何故요하면 金產國에 對해서는 金은 他生產物과 同樣히 한商品으로 金을 通貨로 利用하고잇는 國家의 財貨와 交換되여야 할것이기때문이다 그우에 金의 產額이 增加하면 金의 流通도 또한增大한다

×

그러나 通貨가 安定하야잇는때에도 金의 移動은 何時나 한가지의 原因에 依하는것이아니다 모든 金의 移動을 唯一의 同一한 原因 — 例하면 貿易의 不均衡을 調整하기爲하야서의 必要에 歸하는것처럼 不合理한 일은 업다 그러나 貨幣制度의 混亂時代에는 前述한 原因以外에 金移動을 惹起하는 他原因이 생긴때문에 事情은 더욱 複雜化한다 即 金移動의 他原因이라는것은 通貨價値自身의 動搖이다 米國政府가 將來 金一온스의 價格을 變更할는지 或은 英蘭銀行이 그發行한 銀行券을 金으로 兌換하는 法律上의 義務를 停止하는지 한境遇에는 法令이 流通하는지 或은 國外的으로나 一般人은 預金이나 有價證券 또는 不動產의 態度로 가지고잇는 貯蓄이 어느때에 價値가 減할는지 모른다는 不安을 늣기게된다 如斯한 境遇에는 預金者 又는 投資家는 그들의 財產을 무슨方法으로나 安全히하야두기를 于先 생각한다 第一에 그들이 所有하는 資金 又는 投下資本을 가장 安定되어잇는 通貨로 밧구려한다 換言하면 어던 通貨의 金에 對한 價値가 動搖된 境遇에는 그 通貨를 避하려한다 그리고 또 가튼 不安은 金通貨의 境遇에도 그通貨가 어떠한 事情에 依하야 減價될 念慮가 잇는 境遇에도 同樣하다 —(續)—

最近朝鮮內農改 低資貸出四百萬圓

償還高四百廿五萬八千圓 現在貸出六百餘萬圓

【總督府農產課調查】昭和九年度中期(自昭和十年一月至同年三月末日)의 朝鮮內 農事改良低利資金斡旋狀況을보면 貸出高 三百九十七萬二千四百六十二圓 償還高 四百二十五萬八千九百十一圓 現在貸出額 六百五十五萬二千八百五十九圓이라는데 當期貸出資金의 用途別貸出高는 肥料資金 三百六十五萬三千六百九十四圓(貸出總額의 九割二分) 肥料以外資金 三十一萬八千七百六十八圓(同八分)이다 그리고 肥料資金에 對한 貸出者別 成績은 東拓七十七萬千百八十一圓 殖銀百十三萬四千十二圓 金組百七十四萬八千五百一圓이라한다

殖銀과金組의對立

◇…農業金融上에서

殖銀과 金組는 協調를 保持하야 採長補短으로서 農業金融에 當하고잇섯스나 再昨年 金融의 新設以來 特히 地方的으로 자칫하면 對立을 生하야 現在 地方支店에 잇서서는 從來殖銀 金組의 業務分野를 貸金額 一千圓을 基準으로 一千圓以下는 金組 一千圓以上은 殖銀으로 되어잇슴에 對하야 殖銀에서 小口融資申込者에게 共同融資를하야 一千圓以上으로 貸出을 行함과 如한 金組蠶食의 貸出도 나타나고 一方 金組에서도 이와가튼 傾向을 生하고잇다 이에 對하야 財務當局에서는 조치못한 傾向이라하야 兩者에게 是正을 慫慂中이든바 이지음 殖銀에서는 本店으로부터 各支店에 右金組와의 協調를 通牒하고 金組에서도 殖銀과 協調 採長補短의 實을 擧하기로되어다

米生產費의 急決定不要

日本內地凶作機運

◇…有賀殖銀頭取談

十四日午後三時二十分 歸京한 有賀殖銀頭取는 十五日 總會終了後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運貨問題는 鮮航同盟會의 解散으로 混亂狀態가되엿스나 米만 輸送되면 조치안흔가 CIF가 FOB로 되드래도 相關업다고 생각한다 日本內地商人이 朝鮮內에 買付하러오드래도 關係가 업고 一部에서는 日本內地商人의 朝鮮內進出은 朝鮮側의 利益을 빼앗는것과가티 생각하나 日本內地有力商人의 朝鮮內進出은 歡迎할것을 一人이라도 느는것이 조치안흔가 이런問題는 大局的見地에서 볼것으로 個人의 利害關係에서 말할것이아니다 따라서 朝鮮側에서 不二興業、東拓과가티 直接日本內地에 파는것도 自由이다 目下夏枯임으로 問題가 업스나 新穀期後는 無協定대로 지내여볼것이다 매우 不便케될 境遇에는 그때에 對策을 講究하면 조타 要컨대 輸送의 圓滑을 期케되고 또 運賃이 싸면 問題가업다 米穀生產費의 問題는 目下外地米의 生產費를 決定하여도 이것을 法律上効果가 잇도록 運用함은 될수업고 自治管理案이 通過되지안흐면 빨리 決定할 必要도업다 日本內地에서는 平年作以下의 凶作氣分이 濃厚하야 過剩米統制를 目標로한 法規를 빨리할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低金利는 아즉 繼續할것으로 依然低下傾向이다

最近起債市場

預金利下疑問

渡邊殖銀理事談

殖銀東京駐在理事 渡邊彌幸氏는 有賀頭取에 隨行하야 總會出席次 入京하엿는데 알에와가티 말하엿다 起債市況은 最近 消化力이 相當한바 殖銀으로서는 大藏當局의 意向을 尊重하야 最近發行한 以上 續發은 中止하엿다 그러나 今年中에 滿鐵社債만으로도 一億二千萬圓에 達하고 其他에도 相當할것이다 預金利下問題는 大銀行中에 利下論과 反對論者가 잇서 實現難의 狀態인데 當座預金의 無利는 或은 實現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로서는 豫測키어렵다

朝鮮經濟 上半概要

加藤朝銀總裁報告

十五日午前 東京에서 열닌 朝鮮銀行總會에서 加藤總裁가 營業報告한 內容은 다음과갓다

×

朝鮮의 一般產業狀態를 보면 米는 昨年의 實收高 一千六百七十一萬石을 算하야 이를 前年에 比하면 四百七十萬石의 減收를 告하얏스나 米價는 日本內地稀有의 凶作으로 高價를 呼하고 當期中의 朝鮮米의 輸移出高는 四百九十六萬石에 達하야 이를 前年同期에 比하면 二十五萬石의 減退이나 其輸移出價額에 잇서서는 前年에 比하야 오히려 二千八百萬圓의 增加를 보게되엇다 麥은 今年의 收穫豫想高 一千百九十二萬石에 達하야 前年의 實收高에 比하야 八十一萬石의 增加를 示하는 同時에 蠶繭은 前年의 豐收에 依하야、棉花는 市價의 强調에 따라 모다 良好한 狀況을 呈하얏다 다음에 鑛業界에 잇서서는 金鑛業이 繼續하야 旺盛하야 產金은 益益 增加를 豫想되며 또 軍需工業에 直接 關係가잇는 鐵鑛과 石炭의 採掘은 모다 盛況을 示하고 一方 마네사이트工業도 開始되여 新界는 特히 活氣를 呈하고잇다 水產界는 鰮의 豐漁와 纖諸工業의 隆盛에 依하야 相當히 殷盛을 告하고 特히 各地의 漁港修築과 魚油製造를 目的하는 大規模의 企業出現等에 依하야 益益 그將來를 期待된다。 商業界의 狀況을 一瞥하면 當期中 新設商號에 關하야는 會社는 三百四十四、此資本 九千六百九十四萬圓으로 이를 前年同期에 比하면 社數에 잇서서는 八十、資本에 잇서서는 四千百二十一萬圓 各增加를 示하고잇는 狀態로 當期中에 잇서서도 資本金 一千萬圓以上을 擁하는 北鮮製紙、朝鮮製鍊、朝鮮石油、朝鮮石炭工業、大豆化學工業等의 有力한 工業會社의 新設을 보아 益益有望한 新規事業의 勃興을 促하고잇다。

×

이리하야 當期中의 朝鮮貿易은 輸移出 二億六千七百萬圓、輸移入 三億八百萬圓에 達하야 이를 前年同期에 比하면 輸移出에 잇서서는 五千二百萬圓、輸移入에 잇서서는 六千九百萬圓의 激增을 招來하야 上半季貿易으로 最高記錄을 示하얏다 그러고 此中 對滿洲貿易은 當期中 輸出 二千七百萬圓 輸入 二千八百萬圓에 達하얏는데 이를 前年同期에 比하면 輸出에 잇서서는 二百七十萬圓을 增加하얏스나 輸入에 잇서서는 四十五萬圓의 減退를 告하고잇는 狀態이다 다음에 金融界는 依然 低金利를 維持의 大勢를 하고 大衛經濟의 利權에 終始하얏는데 當期末의 朝鮮內同業者의 預金은 二億九千萬圓 貸出은 五億二千七百萬圓에 達하야 이를 前年同期末에 比하면 預金은 二千三百萬圓 貸出은 六千二百萬圓 各增加를 示하고 郵便貯金과 如함은 現在 四千九百萬圓에 達하야 前年보다 四百五十萬圓을 增加하고잇는 狀態이다。 此間 朝鮮內에는 二、三銀行 支店의 開設이 잇는 同時에 朝鮮商業銀行과 釜山商業銀行과는 當行의 斡旋에 依하야 合併이 成立되게되어 朝鮮內의 金融機關은 益益 整備된 實을 擧하고잇다。 朝鮮의 經濟界의 情勢는 大略 前述한바와 如하야 米價高、繭高、農耕地昻騰等으로 農村經濟를 潤澤케하는바 적지안흔 一方에 잇서 鑛工業과 水產業界와는 益益 旺盛하야가고 또 對滿貿易의 好調에 加하야 南洋方面에의 新販路開拓、對歐輸出商談의 締出等에 依하야 朝鮮貿易은 一般 好況을 告하야 一般 財界는 益益 好調로 向하고잇슴은 期必일이나 最近 朝鮮의 諸般產業 特히 工業의 急激한 發展은 日本內地、滿洲 其他에 對한 經濟的 交涉을 複雜緊密히 하고잇슴으로 此際 內外의 情勢에 適應할 產業政策을 確立할 必要가 痛感된다。

朝銀株主總會

橫瀨氏理事當選

朝鮮銀行에서는 十五日 午前十時부터 東京支店에서 第五十二回總會를 열고 加藤總裁가 議長으로 다음과가튼 議案을 上程하고

一、第五十二期 營業報告書貸借對照表 財產目錄及 損益計算書承認의件
一、同期利益金分配의件
一、理事一名缺員及 同一名任期滿了에 對하야 補選의件

一、二號案은 原案대로 可決하고 三號案은 現本店 檢查課長 橫瀨守雄氏가 候補者로 當選되고 任期滿了의 色部貢氏는 重任으로 決定하얏는데 利益金分配案은 다음과갓다

一、金二千百三十萬五千三百五十三圓 當期總益金
一、金一千三十八萬四千三百四十七圓 當期總損金
差引金九十二萬一千六圓 當期純益金
外 金二十三萬三千六百六十四圓 前期繰越金
合計百十五萬四千六百七十圓
◇其中
一金三十五萬圓 損失補塡積立金
一金五萬圓 配當平均積立金
一、六萬五千圓 役員賞與金及交際費
一金三十七萬圓(政府持株除) 舊株配當金(年四分)
一、十萬圓 新株配當金(年四分)
一金二十一萬九千六百七十圓 後期繰越金

殖銀定期總會

九分配當可決

殖銀에서는 十五日 午前十時十分부터 第三十四回 定期總會를 열고 有賀頭取가 議長席에 안고 다음과가튼 議案을 上程하엿다

一、第三十四期 營業報告書、貸借對照表、財產目錄及 損益計算書承認의件
二、同期利益金分配案의件

右一、二號案을 모도 原案대로 可決하고 同十三分에 散會하엿는데 株主配當은 年九分으로되엿다

京城商議議員

◇…選擧準備開始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十一月一日이 議員改選期임으로 時日도 接近되엇슴으로 選擧準備中인데 京城商工會議의 定員은 一級十五名 二級十五名 計三十名으로 選擧有權者는 營業稅年額十五圓以上을 納付하는사람으로 市內에서 一年以上營業을 繼續한자로 一級이 約一百名 二級이 約二千三百名임으로 一級에서 立候補하는사람은 平均約十四票 二級은 約百六十票를 獲得하여야만될것인데 選擧有權者名簿는 九月十三日現在로서 調製키로되엇다고한다

各道棉作主任官會

廿二日로부터

總督府農產課에서는 今月廿二日부터 同廿四日까지 三日間 總督府會議室에서 各道棉作主任官協議會를 開催한다는바 參加人員은 咸南北、二道를 除外한 棉作獎勵道의 棉作主任官外 技術員等 協議事項은 다음과갓다

一、標準棉의 基準價格決定에 關한件
二、移出棉의 運賃諸費用에 關한件
其他

責任計算開始

朝鮮運會에서

朝鮮運送에서는 系統店取引의 合理化 並 信用向上을 期키爲하야

一、從來의 任意拂制限을 絶對拂制度로 改하고
一、交互計算決算尾는 當該加盟店에 對한 當會社의 債權又는 債務로 處理하는 責任拂計算으로하고
一、事故調查에 關한 規定을 設하야 計算上 解決하기로하고 絶對拂制를 日本內地、滿洲相互間에 擴張하고 荷爲替、品代金의 請求 及 取扱에 制限을 加하야 交互計算의 機能의 改正을 加하얏다

圓爲替續騰 今年新高價

英米크로스昻騰과 日本輸出의好調로

【東京電話聯合】最近日本對米와 對英爲替는 强調裡에 推移하고 特히 對米爲替가 漸騰步調를 묘하야 十四日은 二十九弗八分三으로 今年新高價를 나타냇는데 이原因은 오즉 英米크로스의 昻騰만으로 된것이아니라 主因은 現在는 日本이 輸出最盛期에 該當하고 爲替銀行側에서는 圓爲替의 强調가 매우 自然의 結果로보며 今後의 觀測으로는 生絲를 비롯하야 輸出方面는 依然好調를 묘할것이라고 하드래도 輸入方面의 强材料가 漸次解消할 情勢에잇고 英米크로스의 續騰은 英國爲替平衡資金의 出動을 促함으로 一般은 圓爲替가 이近處를 絶頂으로 될것이라고보는 傾向이 만흔터이다

米日爲替續騰

【뉴욕十四日發聯合】十四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 比하면 賣二十九弗四十五仙으로 四仙下 高買二十九弗四十二仙으로 三仙 高

▲東京爲替(十五日)
對米 賣 二十九弗八分三 買 二十九弗二分一
對英 賣 一志二片卅二分五 買 一志二片十六分三
▲大阪爲替(十五日)
對米 賣 二十九弗八分三 買 二十九弗二分一
對英 賣 一志二片卅一分五 買 一志二片卅二分七

七月外國爲替

朝鮮流入六萬圓

全朝鮮各郵便局所에서 取扱한 七月中의 外國郵便爲替振出六百七十口 四萬七千三百七十八圓 拂渡六千百八十三口 十一萬六千二百卅圓으로 差引六萬八千八百五十二圓은 外國에서 朝鮮에 流入하얏다 이것을 前年七月에 比較하면 朝鮮振出外國拂은 件數一割八分 金額二厘減 또 外國振出朝鮮拂은 件數十五割九分 金額八割五分의 激增이엿다

今日財界 (十五日)

◆米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東京正米 一石 [illegible]
正租(仁川改良) [illegible]
一斤 假 在米 [illegible]
◆市中金銀價 [illegible]

◆株
朝取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商品 (先限氣配)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고무現 [illegible]

株式 商況 (十五日)

漸騰의 高價

前場續騰

昨後場에 高値大引으로 昻騰하엿든바 今朝는 保勢로 東新二十錢高인 百三十八圓二十錢 日產은 不變의 七十五圓十錢의 寄付가 잇슨뒤 다시 騰勢를 示하야 東新百三十八圓 大新八十四圓三十錢 日產七十六圓十錢의 高値大引되엇다

後場强保

東新은 十錢低인 百三十八圓七十錢 日產은 不變의 七十六圓十錢의 寄付가잇섯다

警戒裡에上向

好材料에 飽感傾向으로보아서는 相當한 程度의 反騰를 期待할수잇고 떨어서 警戒不怠裡에 買人氣도 相當한 形勢를 묘하다 그럼으로 요새 市勢는 一氣의 騰勢는 업스나 米國의 好況과 이를 伴하는 日本輸出增加豫想等의 强材料를 압장세우고 漸騰의 高價가 繼續되는만큼 市勢上 强味를 띄이게되다 그러나 目下로 觀察할것은 이와가티 漸騰의 거름이 얼마한 値幅의 高價까지 미칠 것인가함이 그焦點이다 오늘의 財界實情을보면 아즉 完全한 買轉換期에 일으럿다고 보기가 어려운 事情이 多한 關係上 다만 一時 또 部分的 樂觀材料만 가지고 大勢를 完全히 左右할은 어려울것갓고 또는 돌이혀 이로써 大逆轉의 機가 되지안흘가하는 弱氣觀이잇다

今後高價限度

大期待는尙早

昨年의 株價地位를 보면 모두 低位에잇고 또는 金融의 緩慢低金利로 諸株를 通하야 採算的으로 잘 餘地가 잇다고 봄수잇다 그럿타고해서 압흐로 高價出現의 큰期待를 할것이냐고하면 이것은 아즉 어려운 點이 相當히잇다 即 目下는 過渡期로 어느때 어떠한 不安이 생길는지 몰를때인만큼 投資 投株에 對하야 警戒치안흘수가 업게되라 와가튼 過渡期에 大市勢를 바라다는것은 좀 생각할일로 秋市勢에 對하야 多少期待를 갓는다고하드래도 今年內에 큰高價出現은 어려울지 안흘가한다 모든 不安事情에 出發하고 安心케될 時期는 明年下半期로 그때부터가 完全한 買轉換의 時代가

市場六感

株

昨後場에 高價大引의 勢로 보아서는 市勢의 바닥이 相當히 세이고한 바탕 노프갈듯 나타내일것가티 생각을 가게한다 ▲그러나 一氣의 騰勢를 못퍼는것으로는 高價期待의 맘이 阻喪케되다 ▲어떠튼지 市勢는 위로 氣運을 펼것가트면서도 이것을 聲援하는 新規材料가 업슴뿐만아니라 오래두안 買優勢이든 軟派의 高價觀의 傾向도 等閑히 볼수업는만큼 騰勢의 거름은 不得히 주춤거려 ▲目前에잇서 注目을 끄흐는것은 東新百四十圓關門을 突破케될가 또는 그以上의 노프갑으로 繼續的上向을 보게될가 或은 이關門突破로써 大逆轉의 肯定을 맛케하는 展開케하는 機會를 맨들게하는 것이 안될가하는 點 ▲그럿치만 아모러케 생각하야도 環境은 米國好況과 이를 伴하는 生絲高의 好材料에는 買氣를 喚起케 함에 足한 强材料가 눈에 안띄이는것을 가지고 安心買는 尙早치안흘가 생각한다

米

▲今朝當地는 阪地의 三十圓二十錢를 市勢임에도 不拘하고 三十餘丁을 突高! 宛然한 平地風波인결 ▲그동안 阪地八十餘丁의 反撥을 無視하엿든만큼 참아리 當然하다고 볼수도잇스나 그러나 萬一 地場이 買贊成을 하엿든들 絶對이별理가 萬無 ▲第三節 當地中限이 三十圓五十錢이란 高價를 낸後 第四節에 물어가서 一萬으로부터 中限四十錢에 一萬石이야로라는 高喊소리가 擾亂을 뒤진자 可謂 一軍皆額의 大壯觀을 묘하엿다 ▲一手에 萬石이야로라는 소리는 大正八九年度以後에 처음듯는 소리엇다 ▲萬石賣의 主人公이 果然 그누구인지는 몰으나 同店의 中限賣物이 表面上 一萬千餘石이나 잇슴속 戰線延長인줄을 可知 ▲그러나 萬石賣에 酣戰하는이까 업섯스니 前日 南澤氏의 全盛時代와는 다르모양 ▲今朝 當限은 三十圓九十錢賣、丸仁三萬米는 勿驚! 三十圓五十錢、在米의 品薄이 그얼마나 深刻함을 亦可知

期米 買氣가 不熄

前場爆發

昨後場阪地 三十圓二十四錢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圓二十一錢인 三丁反落을 排하고 三十八圓○九錢인 六丁反高로 場을 始한後 阪地依然二十錢臺임에도 不拘하고 三節八圓三十二錢까지 奈騰하엿다가 二十五錢으로 小押하더니 結局阪止三十錢의 最高를 付하야 二十九錢에 頑强히 場을 止하엿다

後場續强

前場보다 一錢低인 二十八圓二十八錢에 始한뒤 硬化하야 前場高價 三十二錢이 再現하엿다가 軟化하엿다

天候大體不發

冷氣又復侵害

本年의 稻作觀은 朝鮮은 全南地方의 旱災를 除한外에는 大體良好하다고 樂觀說이 一時濃厚하엿스며 日本內地는 一朝關西地方의 水害가잇섯스나 洪水는 돌이혀 肥料化하엿다하야 그다지 悲觀하기까지에 至하지안엇고 從하야 土用天候가 無事經過하엿다하야 또한 樂觀을 묘하엿스나 農林省發表에 依하면 土用期間中에 五日바게 晴天이 업섯다고한다 何如間 朝鮮及 日本內地를 通하야보면 今日의 現狀으로 平年作이 될락말락한 狀態일뿐아니라 昨今 天候는 더욱 不良하야 北海道와 如한 地方은 氣溫이 低下하야 例年보다 五度乃至 八度의 低溫이오 京阪兩地도 昨今冷氣가 侵害하야 稻作發育에 非常한 打擊을 與하야 凶作說이 漸次 擡頭하는 모양이다 實로 農家에서 가장 警戒하는 三大厄日의 今後가 마치 何如할지 몰으는 今日이라 차아리 買賣成은 할지어정 賣方針을 確樹하지는 못할이라고 某筋에서는 看破하고잇다 果如何?

當地突然旋風

阪地市勢不關

新甫十限이 殺到한後 阪地는 低價에서 八十餘丁反撥이엇슴에도 不拘하고 當地는 僅히 四五十丁反高에 不過하더니 昨後場부터 阪地市勢의 依然伸惱임에도 不關하고 猛烈히 騰貴하기 始作하야 今朝當限은 三十圓九十錢으로 三十圓五十錢 先限은 三十八圓三十錢臺로 突高하야 宛然한 旋風突擊의 觀을 묘한다 要하면 當地의 先限은 共同阪地보다 約三十丁이나 伸惱하엿든 關係로 阪仁의 鞘를 縮少하느라고 昻騰하엿다고 복수잇스며 一方의 解釋으로는 業어 來客側의 實需傾向의 關係도 업지아니하다고 하나 大體原因은 本年의 稻作이 日本內地及 朝鮮地方을 不問하고 平年作이 될락말락한 狀態뿐아니라 昨年凶作의 影響이 이제야다시 露骨化하야 政府의 大量拂下를 하

展開될것으로 생각한다 要컨대 이미 오래두안 떠러저온 市勢인 만큼 더떨어질것가트나 本格的 好轉에는 相當한 時日이 걸니거 될것이라는 觀測이잇다

朝取實物取引

◇…賣買高二百枚

東京國債市場

【電通東京電話】漸次好勢의 米貨債는 今朝에 다시 利拂好感으로 六分半은 四百圓의 新價로 買進되야 五分半도 一圓四十錢高를 示하고 人氣는 米貨債로 集中되엇다

宇治電氣 [illegible] 大同電力新 [illegible] 에라파이 [illegible] 滿洲電信電話 [illegible] 帝國火藥 [illegible] 人造肥料 [illegible] 日滿아루미 [illegible] 日滿亞麻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二ノ一
電話長 九一六 六九三 一一六五

各地正米

▲黃島新場情報(大阪電話) 賣方은 東京側、中東側、正米側、買方은 中中員、神戶側、地場側 가外에는 新規의 不安도 업지만 從來의 悲觀說은 더욱 弱化하야 大勢는 主導的强材料로 하야 買氣가 刻一刻으로 旺盛해 가는 모양이라고한다

京城反撥

賣氣旺盛과 擁護의 賣物薄으로 氣配三十錢 反撥이엇는데 三等 三〇、四等 三〇、三〇

仁川奔騰

掛下米와 下品米의 買氣가 依然日本內地의 淸算大限의 高値에 傍觀狀態이나 업고 氣配三十錢奔騰이엇는데 ◎三等三十圓五十錢 四等三十圓三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七十五錢

釜山少强

市場川邊 一千以內外 產地에서 整理的 賣物이 多少잇다 一般으로 低價의 逆移入米를 準備한때문에 거의 買氣가업고 市場은 閑散으로 氣配十錢高이엇는데 ◎三等三十圓 四等三十圓 一等白米十二圓八十二錢

大邱保勢

產地의 氣强과 地場所持品强硬으로 氣强調이나 買氣不振이며 活氣가 적엇는데 ◎三等廿九圓七十錢 四等廿九圓 一等白米十二圓二十五錢

群山續騰

產地賣物이 업는때 纖細하야 日本內地買注文到來와 原料買가 多少잇서 十五錢昻騰이엇는데 ◎二等三十圓四十五錢 四等三十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三圓二十錢

木浦不動

依然日本內地買注文이 업고 在庫不足으로 雙方沈默이며 市況은 緩慢閑散이엇는데 多爾三等㊂三十一圓五錢 四等三十一圓三十錢 雄町 三等三十一圓 四等廿九圓八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南浦不變

所持品利强으로 新穀期에 市勢가 不變이엇는데 ◎三等三十圓三十錢 四等三十圓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三十錢

金融 (十五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十五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十五日)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大阪五期米◆ [illegible]
◆綿油沖價◆ [illegible]
◆綿糖粕沖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米 (十五日)

◆朝取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東京定期◆ [illegible]
◆朝取定期賣買高◆ [illegible]
◆東京見米◆ [illegible]

株式 (十五日)

◆朝取定期◆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商品 (十五日)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朝取期米先限◆ [illegible]